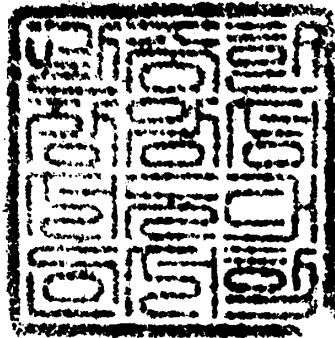


碩士學位 論文
指導教授李爽周

‘관주 신약전서’의 국어학적 고찰
A Study of ‘관주 신약전서’ in Korean Linguistics



1993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語學 專攻

趙 允 濟

碩士學位 論文
指導教授李爽周

‘관주 신약전서’의 국어학적 고찰

A Study of ‘관주 신약전서’ in Korean Linguistics

위 論文을 文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國語學 專攻

趙 允 濟

論文認准書

趙允濟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3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審査委員 _____ (인)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1
2. 연구약사	1
II. 표기법의 특징	3
1. 된소리	3
2. 종성 표기	8
2-1. 7종성 및 /ㄹ, ㄹ/ 표기	8
2-2. /ㅅ / 표기	9
2-3. /ㅍ /→/ㅂ /	11
3. 분철과 연철	13
3-1. 분철	13
3-2. 연철	14
3-3. 혼철	14
4. 어두의 구개음 및 유음 표기	16
4-1. 구개음 /ㄴ / 표기	16
4-2. 유음 /ㄹ / 표기	16
5. /ㄷ, ㅌ /의 구개음화 표기	17
6. /ㄹ / + /ㄴ /의 표기	18
6-1. /ㄹ / + /ㄴ /으로 표기된 경우	19
6-2. /ㄹ / + /ㄹ /으로 표기된 경우	20
7. 순음 아래 /ㅡ /의 표기	21
8. / , / 표기	21
9. 이중 모음(복모음) 표기	23
10. 어휘 사용상의 특징	25

11. 외래어의 표기	31
11-1. 외국 인명	31
11-2. 외국 지명	32
11-3. 기타	33
III. 형태상의 특징	35
1. 조사	35
1-1. 주격	36
1-2. 보격	38
1-3. 목적격	39
1-4. 관형격(속격)	41
1-5. 서술격	42
1-6. 부사격	48
1-7. 독립격(호격)	56
1-8. 주제격(특수조사)	57
2. 어미	58
2-1. 선어말 어미	59
2-2. 어말 어미	61
2-2-1. 종결 어미	61
2-2-2. 비종결 어미	67
3. 존대법	72
3-1. 존칭 선어말 어미의 사용	72
3-2. 존칭 조사의 사용	73
3-3. 존대어의 사용	74
IV. 결론	75
* 참고문헌	79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이 연구는 1937년에 발간된 '관주 신약전서'의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하여, 성경의 표기법과 형태상의 특징을 고찰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보다 더 깊은 연구의 발판을 삼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성경 귀절들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나타난 성경의 표기법과 국어사에 나타난 해당 표기법의 변천 과정을 비교해 봄으로써 성경의 표기법이 가지는 특성을 살펴보고, 성경의 표기법이 국어의 변천과 어떤 상관 관계 혹은 차이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여 보고자 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국어의 표기법은 시대에 따라 많은 변천을 계속하여 왔다. 李翹燮(1992:2)에서의 표현대로 강력한 통제하에서 출발하였던 국어 표기법이었지만 얼마 안가서 그 통제를 벗어나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온 것이다. 특히 이러한 표기법의 변천은 우리나라의 역사나 기타 여러가지 정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기독교의 전래로 인한 새로운 문물과 사상의 유입은 국어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성경만큼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책이 없다고 한다. 이 말은 성경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말과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 번역에 나타난 표기법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국어의 변천 내지 국어의 표기법 정착을 살펴 보는 데 매우 유익하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한다. 그런데 한글로 번역된 성경은 지금까지 몇번의 출판 과정을 거치면서 그 번역에 있어 변모를 겪어 왔다. 여기서 번역된 성경이 어떤 표기법으로 기록되었는지를 현대 표기법에 따라 출간된 성경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국어의 변천 과정을 연구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크고 작은 변화들은 국어의 표기법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연구 약사

성경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신학적 방법을 통하여 접근하고 연구하는 방법이 그 하나이며, 비신학적인 방법을 통하여 접근하고 연구하는 방법이 다른 하나이다. 여기서 비신학적인 방법을 통한 접근과 연구라함은 정길남(1987:9)에서의 설명과 같이 번역사, 문체, 서지학적 측면에서 다루는 것과 국어학적 측면에서 다루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번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고찰로는 김양선(1955-1960) '한국의 성서 번역사'에서 비롯되어 김윤경(1960) '성서가 국어에 미친 영향', 박창환(1971) '한글성서 번역사', 김혜곤(1973) '한국의 성서 번역 과정의 사적 배경과 선교 교육에 관한 연구', 이원순(1977) '성서 국역사 논고', 김중은(1978) '구약성서 국역사' 등의 연구로 이어지고 있는바, 이들의 연구는 주로 성경의 번역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문체적인 측면에서의 고찰로는 김영덕(1971) '한국초기 성서 번역체 연구', 표성수(1971) '한글 성서 문체의 형성 및 변화 과정에 관한 소고' 최태영(1983-1986) '초기번역성경연구 I, II, III'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의 연구는 성경 번역체의 특성을 고찰하고 있으며, 김형철(1987) '19세기말 국어의 문체, 구문, 어휘의 연구'는 성경의 문체를 다른 문서들과 비교, 분석하여 고찰하고 있다.

서지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로는 김봉희(1978) '국역성서의 서지학적 고찰' 이웅호(1983) '한국 천주교회의 한글 번역사업' 등의 연구가 있는데, 김봉희는 초기의 번역성경인 로스역 '예수성교전서'로 부터 현대어 번역 성경인 공동번역에 이르기까지의 성경을 서지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였고, 이웅호는 초기번역성경을 비롯하여 천주교 및 개신교 문헌들을 서지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한편 국어학적인 고찰로는 유창균(1967) '국역성서가 국어의 발달에 미친 영향' 으로부터 지춘수(1971) '초기 성경에 나타난 정서법에 대하여', 나채운(1971) '국역성서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송민(1976) '19세기 천주교 자료의 국어학적 고찰', 최태영(1983-1986) '초기번역성경연구 I, II, III' 정길남(1983) '개화기 번역성서의 음운고찰: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1984) '이수정역 '마가복음'의 국어학적 고찰', (1985) '초기 국역성서의 격조사에 대하여' (1985) '초기 국역성서의 표기에 관하여', (1987) '초기 국역성서의 모음 현상에 관한 고찰', 서정수(1985) '초기 우리말 성경의 표기법과 대명사에 관하여'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들의 연구는 성경을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II. 표기법의 특징

1. 된소리

된소리는 조음 기관에 강한 긴장을 일으켜 발음되는 소리로서 '관주 신약전서'(이하 신약이라는 말로 대신함)에서는 된소리로서 /ㅅ/ 계의 병서를 사용하고 있다. 15세기에는 /ㄷ, ㄸ, ㅌ/ 등이 된소리로 쓰여졌으나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ㄱ/의 된소리로는 /ㄲ/, /ㄷ/의 된소리로는 /ㄸ/, /ㅌ/의 된소리로는 /ㅍ/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ㅅ 계의 병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어의 된소리 표기에 관하여 李基文(1961:68)에서는 古代 국어에는 된소리 계열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으며, 계림유사는 어두자음군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으나 15세기 중엽에 마찰음의 된소리가 語頭나 語中위치에서 평음이나 유기음과 분명히 대립됨으로써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17세기 초엽에는 어두자음군 /ㄲ/, /ㄷ/, /ㄴ/의 혼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를 들면 /ㄲ/의 異體로서 15, 6세기 이래의 /ㄷ/과 새로운 /ㄴ/의 공존이 결과되었고, 여기에 각자병서가 부활되어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된소리가 3종의 표기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다가 19세기에 와서 된소리 표기는 모두 된시옷으로 통일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고 하였다. /ㄷ, ㄸ, ㅌ, ㅍ/ 등. 그러나 /ㅅ/의 된소리는 /ㅆ/이 아니라 /ㅍ/으로 통용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金亨奎(1975)에서는 된소리의 성립을 두가지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어두복합자음의 형성으로서 '계림유사'의 “白米曰 漢菩薩” 등의 기록을 통해 이 시대에는 아직 모음이 탈락하지 않은 /보술>뽏/, /보돌>뽏/의 二音節語였으리라는 사실로 미루어 신라어에는 아직 어두복합자음의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둘째 中期語 초기부터 나타나는 /ㅆ/(亦), /ㅍ/(夢)과 같은 표기는 복합자음과는 별개의 음운 현상으로 이들의 출발은 閉鎖音과 閉鎖音의 결합에서 나온 음운 현상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어떻든 이들 낱말은 된소리가 독립된 음소로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語例는 中期語 초기에는 극히 드물고 후기에 오면서 많아지는 사실로 미루어 신라시대 언어에는 아직 된소리가 음소로 성립되지 못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한편 中古語(고려어)에서 된소리 /k', t', p', ts', s'/들이 말기에 새로 나타

나게 되었고, 中期語에 있어서는 /ㅍ/, /ㅑ/, /ㅓ/ 와 같은 된소리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국어의 된소리 음운이 고려 말기부터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된소리의 표기에 있어서는 /ㅅ/이 /ㄱ, ㄷ, ㅈ/들과 ㅅ用된 글자가 있음을 말하고 이들이 오늘날의 된소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金亨奎(1975:108)에서는 또 오늘날 많은 된소리 語辭를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알타이 諸語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말도 처음엔 閉鎖音과 破擦音에 有聲, 無聲의 대립이 있었을 것이나 이를 상실하고, 신라시대에 有氣音이 생기고, 다음 麗末 아니면 朝鮮 초기에 된소리가 생겼다. 그것은 앞에서 보듯이 초기 中期語엔 극히 소수의 된소리 낱말이 있었을 뿐이요, 다음에 우리말 強音化 現象에 따라 語辭의 평음이 강음으로 바뀌고, 또 /ㅍ, ㅑ, ㅓ, ㅕ/들이 [pk, ps, pt, pts]의 복합자음의 성격을 상실하고 된소리화 한 결과 오늘날 된소리로 된 많은 語辭를 가지게 된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의 된소리에 관한 것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1933년 10월 29일에 공포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는 각론 제2장 제1절의 된소리 항에서 종래 /ㅅ/계와 /ㅈ/계로 표기되던 것이 각자병서 /ㄱ, ㄷ, ㅈ, ㅊ, ㅌ/으로 통일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말 중에서 된소리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농후한 것을 /ㄱ, ㄷ, ㅈ, ㅊ, ㅌ/으로 보고 이에 대한 된소리를 /ㄱ:ㄱ, ㄷ:ㄷ, ㅈ:ㅈ, ㅊ:ㅊ, ㅌ: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된소리로 표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3항에서 “한단어 안의 두 음절 사이에서, 아무 뜻없이 나는 된소리는,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된소리 표기에 대하여 계림유사로 대표되는 古代國語에서는 된소리 계열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中古語 특히 15세기에 된소리 계열이 확인되고 있으며, 그 표기로는 /ㅅ/이 /ㄱ, ㄷ, ㅈ/들과 ㅅ用된 글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現代國語에 있어서는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래 /ㄱ, ㄷ,

ㅁ, ㅂ, ㅅ / 등의 각자병서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다고 하겠다.

이 처럼 된소리 표기로는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부터 /ㄲ, ㅃ, ㅆ, ㅈ, ㅊ / 등으로 쓰도록 하였으나 1937년에 발행된 '신약'에서는 아직도 /ㄲ, ㅃ, ㅆ, ㅈ, ㅊ /으로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제 성경 본문에서 그 실례를 보도록 하자.

1-1. /ㄲ /

'신약'에 /ㄲ /이 사용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드러가샤 (1:21)
예수ㅣ 꾸지져 굴으샤되 (1:25)
예수께서 나아와 풀어업드려 (1:40)
저를 썩긋하게 하시리이다 하시거늘 (1:40)
듯기는 드러도 썩듯지못하게 흠이니 (4:12)
다시 살아날 때까지 (9:9)
무리와 흠께서 여리고에서 나가실식 (10:46)
풀어 쓰울고 오너라 (11:2)
오직 쏘춘 아직 되지아니하시니라 (13:7)
나종까지 건되느자는 썩든를진더 (13:14)
자 쏘츠로브터 하늘 쏘까지 (13:27)
너희는 조심하고 썩여기도하라 (13:33)
갈대에 썩여 마시우고 굴으되 (15:36)

1-2. /ㅃ /

'신약'에 /ㅃ /이 사용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온 유대 자와 (1:5)
허리에 가죽 띠를 썩고 (1:6)

매죽이와 석청을 먹더라 (1:6)
 그 때에 예수ㅣ (1:9)
 나를 쫓라 오너라 (1:17)
 또 회당에서 나와 (1:29)
 뒤를 쫓라가 (1:36)
 문동병이 썩나가고 (1:42)
 썩 먹을 거를도 업논지라 (3:20)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자는 (3:35)
 물결이 뛰여 비에 드러오니 (4:37)
 도야지 썩가 비탈노 누리다라 (4:13)
 발 아래 몬지도 썩러브려 (6:11)
 그 어린 썩이 (7:25)
 주너의게서 썩러지논 (7:28)
 네 썩의게서 썩낫스니 (7:29)
 썩 다섯덩이를 썩여 (8:19)

1-3. /썩 /

‘신약’에 /썩 /이 사용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영영혼 죄에 썩지느니라 (3:29)
 썩를 썩리논 사롬이 (4:3)
 막옴에 썩린 도를 썩앗논 것이오 (4:15)
 속에 썩리가 업서 (4:16)
 세상에서 썩내하느자가 (9:3)
 너를 범죄케 하거든 썩여브리라 (9:47)
 이 산드려 썩서 바다에 썩지라 하고 (11:23)
 그 퍽하야 썩신 사롬을 위하야 (13:20)
 제비를 썩더라 (15:24)
 혼사롬이 썩니 가서 (15:36)

1-4. /썩 /

‘신약’에 /ㅍ/이 사용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즈귀를 에워쌘을 면코져ㅎ심이러라 (3:9)
병든 사롬이라야 쓰느니 (3:17)
씨를 뿌리는 사롬이 (4:3)
처음에는 싹이 나며 (4:28)
낮을 쓰는 것은 (4:29)
무숨 비유로써 비유홀고 (4:30)
늦 그릇을 씨슴이러라 (7:4)
면류관을 역거 죄우고 (15:17)
시테를 느려다가 뵈로 싸서 (15:46)

1-5. /ㅍ/

‘신약’에 /ㅍ/이 사용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샤귀를 내여쫓치시딕 (1:34)
너를 범죄케 ㅎ거든 찍어브리라 (9:43)
제 옷을 씌지며 굴으딕 (14:63)
불쏘임을 보고 (14:67)
예수를 채썩질ㅎ고 (15:15)
우으로브터 아래썩지 썩여져 (15:38)
닐곱 샤귀 쫓차내여주신 (16:9)

이제 당시에 간행된 다른 기록들의 된소리 표기를 살펴 보도록 하자.

- 屈伏하고 잇다는 다음과 같은 뜻깊은 一句를 ...
(동아일보, 1937. 10. 14. 林和)
- 문학은 어디까지나 ... 현실에 드러맞지 안을 때 ...
(동아일보, 1937. 10. 27. 金午星)
- 이 작품을 쓴 것은 사실이다 (조선일보, 1937. 9. 20. 崔載瑞)

- 어떠한 효과가 잇슬찌 업슬찌 ... (조선일보, 1937. 9. 25. 洪起文)
- 있을는지 물은다 (朝光, 1937년 10월호, 又夢人)
- 한 地名이 이렇게 各各 달라서야 될 수가 있습니까? ... 時期가 늦었다고 ... 있다고 하지 안습니까? (朝光, 1937년 11월호, 鄭寅雙)

여기서 보듯이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후 우리말에 있어서 된소리가 /ㄲ, ㅋ, ㆁ, ㆁ, ㄷ, ㅌ, ㄴ, ㄹ / 등의 각자병서로 표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아직도 된소리의 표기로서 된시옷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된소리의 ‘된시옷’ 표기에 대하여 池春洙(1971:508)에서는 “이렇게 된소리를 적음에 있어서 된시옷의 표기는 꽤 끈질기어 한글학회 맞춤법의 주장이었던 /ㄲ, ㅋ.../이 이루어질 때 많은 반대에 부딪혀야 했었다”고 전제하고, “그들이 우리의 고문헌에 나타난 우리말 기록을 얼마나 깊이 천착하였는가는 그것뿐이 아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국어맞춤법의 정통을 어느정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표기가 적잖이 눈에 뜨인다.”고 하였다.

2. 종성 표기

‘신약’에 나타나는 종성 표기의 특징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 등의 7개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ㄷ, ㄹ / 등이 사용되고 있는 정도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ㄷ /의 사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ㄷ /은 모두 /ㅅ /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ㅌ, ㄷ, ㄴ, ㅅ /이 /ㅅ /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특이하다.

2-1. 7종성 및 /ㄷ, ㄹ / 표기

‘신약’에서는 종성에 주로 7종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을 사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ㄷ, ㄹ / 등이 사용되고 있다.

/ㄱ / 시작이니(1:1), 기록헌(1:2), 각각(1:5), 주복하고(1:5), 가족씩들(1:6)
매죽이와 석청을 먹더라(1:6), 능력이(1:7)

/ㄴ / 선지자(1:1), 기록헌(1:2), 회기헌(1:4), 전파헌야(1:4), 온유대(1:5)
 요단강에서(1:5), 오시논이가(1:7)
 /ㄹ / 아들(1:1), 불지어다(1:2), 스자틀(1:2), 길울(1:2), 굴으티(1:3),
 세례를 즐식(1:4), 약대털울(1:6)
 /ㅁ / 하늘님의(1:1), 복음의(1:1), 말숨에(1:2), 하라홈과(1:3), 죄샤홈을
 (1:4), 사롬이(1:5), 가버나움에(1:21)
 /ㅂ / 압헤(1:2), 첩경을(1:3), 넓고(1:6), 급혀(1:7), 끌어업드려(1:40),
 업논티(2:2), 씩갓느냐(2:9), 잡수실 썩에(1:15)
 /ㅅ / 잇서(1:3), 꽃게(1:3), 갓치(1:4), 엇게헌니(1:4), 밧더라(1:5), 푸논것
 도(1:7), 못사롬이(1:22), 고티아니홈일너라(1:22)
 /ㅇ / 광야에(1:3), 요단강에서(1:5), 농력이(1:7), 순종헌다(1:27), 회당에서
 (1:29), 민망히녀이샤(1:41), 구멍울(2:4)
 /ㅅ / 비돗이(1:10), 낚지못히엿느뇨(2:25), 흠이(4:5), 붉히(8:25)
 /ㅅ / 슬허하고(16:10)

2-2. /ㅅ / 표기

‘신약’의 종성 표기에 있어서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ㄷ, ㅌ, ㅊ, ㄴ, ㅅ, ㅎ, ㅍ / 등이 모두 /ㅅ /으로 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2-2-1. /ㄷ / → /ㅅ /

‘신약’에서 /ㄷ /이 /ㅅ /으로 표기되고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꽃게 하라홈과 고티 (1:3)
 죄 샤홈을 엇게 헌니 (1:4)
 세례를 밧더라 (1:5)
 곱 물에서 올라오실식 (1:10)
 회기하고 복음을 밋으라 (1:15)
 집웅을 쫓고 (2:4)
 예수 | 더회의 밋음을 보시고 (2:5)
 큰일 흥히심을 듯고 나아오거늘 (3:8)

2-2-2. /ɛ/ → /s/ + /ʔ(ㄱ, ㄷ, ㅎ)/

‘신약’에서 /ɛ/은 /s/ + /ʔ(ㄱ, ㄷ, ㅎ)/으로 표기되고 있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곳게 ㅎ라흠과 ㄱ치 (1:3)
권세잇는자와 ㄱ고 (1:20)
예수 | 밀 밧츠로 지나가실식 (2:23)
친속들이 ㄷ고 ㅃ들너 나감은 (3:21)
돌작밧헤 썩러지매 (4:5)

2-2-3. /ʔ/ → /s/ + /ʔ/

‘신약’에서 /ʔ/은 /s/ + /ʔ/으로 표기되고 있다.

그믐을 ㅃ리고 ㅈ치니라 (1:18)
샤귀를 내여 ㅈ치니라 (1:34)
서귀관 몇치 거긔 안져서 (2:6)
내여ㅈ는다 ㅎ니 (3:22)
사단을 내여ㅈ겻느냐 (3:23)

2-2-4. /ㄴ/ → /s/

‘신약’에서 /ㄴ/이 /s/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있다.

맛나셔 ㄱ으되 (1:37)
사룸의 맛난 것과 (5:16)

2-2-5. /ㅈ/ → /s/

‘신약’에서 /ㅈ/이 /s/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모든 사롬이 쥬를 찻느이다 (1:37)
 흥상 밤 낫 무덤과 산에 잇서 (5:5)
 나사렛 예수를 찻느고나 (16:6)

2-2-6. /ㅎ/ → /ㅅ/

‘신약’에서 /ㅎ/이 /ㅅ/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

넛느이가 업느니 (2:22)
 쥬머니에 돈도 넛치말며 (6:8)
 손가락을 그 귀에 넛코 (7:33)
 데즈들이 무리 압헤 낫커늘 (8:6)
 여긔 잇는 것이 돛사오니 (9:5)

2-3. /ㅍ/ → /ㅂ/

‘신약’에서 /ㅍ/이 /ㅂ/으로 표기되는 경우가 있다.

네 압헤 보내리니 (1:2)
 늑흔 산에 올라가샤 (9:2)
 그 사롬들 압헤서 (9:2)
 예수 | 압서 흥히시더니 (10:32)
 님사귀 외에 아모 것도 (11:13)

종성표기에 대하여 李基文(1961:117)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訓民正音은 “終聲復用初聲”이라고 하였지만 解例 終聲解는 終聲을 사실상 8字 體系로 규정하였다. 즉 “ㄱ ㅎ ㄷ ㄴ ㅂ ㅅ ㅈ ㅊ 八字可足用也”라 하여 이 밖의 初聲은 終聲으로 쓸 필요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終聲 표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심한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점에 대하여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또 하나의 심한 혼란은 終聲의 /ㅅ/과 /ㄷ/에서 발견된다. 15세기에 있어서는 이 두 받침이 엄격히 구별되었던 것인데, 16세기에 특히 그 후반에 이 구별이 무너졌던 것이다. 17세기에 들어서 받침의 /ㅅ/과 /ㄷ/의 選擇은 지극히 恣意的이었다. 例: 굳고(固, 痘瘡集要 上34), 굿거든(同 下 217)

그러다가 18세기부터는 /ㄷ/은 점차 없어지고 /ㅅ/만으로 통일되는 강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신한 例로는 “미더(信)”를 밋어(明義錄諺解)라고 표기한 것조차 볼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우리말의 終聲體系는 8終聲에서 7終聲으로의 변화를 갖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그러던 것이 20세기에 이르러 다시 한 번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1909년에 마련된 國文研究議定案에서 /ㄷ/을 /ㅅㅅㅅㅅㅅㅅㅅㅅ/등과 함께 받침으로 쓸 것을 규정하였으나 실용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다시 1930년 諺文綴字法에서 확정되고, 普通學校 朝鮮語讀本에서 채택되면서 /ㄷ/이 다시 終聲의 자격을 찾게 되었다.¹⁾

한편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제3장 제5절 받침 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1항 재래에 쓰던 받침 이외에,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따위의 받침들을 더 쓴다.

이는 우리말의 표기에 있어서 본래의 音을 밝혀 적으려는 노력으로 보여진다.

李益燮(1992: 363)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표기법이 ‘臨時的 音理’를 따르면 안되고 本音을 밝혀 적어야 한다는 周時經의 理論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어떠한가?

‘신약’에 있어서는 계속하여 /ㄱㄴㄷㄹㅁㅂㅅㅇ/ 등의 7終聲을 사용하고 있

1) 이익섭(1992), p. 353

으며, /ㄷ/, /ㄷ/ 등이 예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신약'에서는 종성의 사용에 있어서도 변화를 거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분철과 연철

'신약'에서의 분철과 연철에 관한 표기로는 분철과 연철 및 증철(흔철)의 표기가 혼용되고 있는데, 분철의 표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분철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3-1. 분철

'신약'에서 분철의 표기가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하느님의 아들 (1:1)
복음의 시작이니 (1:1)
기록한 말씀에 (1:2)
죄사함을 얻게 하니 (1:4)
성신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 (1:10)
사단의게 시험을 받으시며 (1:13)
그약이 임의 이르렀고 (1:15)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15)
그물을 바다에 던짐을 보시니 (1:16)
못사람이 이상히 녀여 (1:27)
안드레의 집에 드러가시니 (1:29)
집에 계신 소문이 (2:1)
그 계신 곳의 집웅을 쫓고 구멍을 (2:4)
못사람의게 낚으샤되 (3:4)
여러사람을 임의 곳치신고로 (3:10)
낚으샤되 (4:2)
사람이 무덤으로브터 나와서 (5:2)

여럿이 듯고 이상히 녀여 굴으되 (6:2)
 사툼의 명훈 것으로 도를 삼아 (7:7)
 그 높은 부스럭이를 주으니 (8:8)
 선싱님이여 (9:5)
 너희 막음이 완악함을 인하야 (10:5)

3-2. 연철

‘신약’에서 연철의 표기가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회당에 드러가샤 7르치시매 (1:21)
 우리가 너로더브러 무슨 상관이 잇노뇨 (1:24)
 예수 | 꾸지저 굴으샤되 (1:25)

3-3. 혼철(중철)

‘신약’에서 혼철(중철)의 표기가 나타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광야에 소위 잇서 (1:3)
 그 첩경을 궂게하라 흠과 고치 (1:3)
 나보다 능력이 만흐시니 (1:7)
 하늘님나라가 갓가왔스니 (1:15)
 능히 저를 씹긋하게 하시리이다 흥거늘 (1:40)

李益燮(1992:204-205)에 따르면 分綴와 連綴의 문제는 訓民正音 창제 당시에는 月印千江之曲을 제외하고는 철저히 連綴의 원칙이 지켜졌으나 15세기 문헌에서부터 간헐적으로 分綴 표기에 대한 욕구가 고개를 들었고,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물결이 점차 높아져 17, 8 세기로 이어지고, 드디어 分綴主義가 확고한 지위를 확보해 가기에 이른다고 하였다.

19세기에는 대개 18세기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지만 다시금 얼마간의 혼란을 겪는 시기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특이한 맞춤법을 구사한 문헌이 있는가 하면 특히 動名詞의 기에서 연철쪽으로 후퇴한 문헌들도

문헌들도 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예로서는 19세기초의 “新刊增補三略直解”(스름물 마음물 ...), 19세기 중엽의 “太上感應篇圖說謬解”(목숨이, 짓궂습의 ...), 19세기 말엽의 “三聖訓經”(스름의 맛음은, 몸이 ...)과 “過化存神”(남의, 스름이 ...) 및 “斥邪論音”(사름의, 마음이 ...) 등을 들고 있다.

이들 문헌에서는 명사와 용언에서는 分綴 표기가 두드러지나 동명사에서는 連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過化存神”의 경우에는 가끔 ‘업슬것시요’와 같이 重綴되는 방식을 취하는 예도 있다.

한편 19세기말에 간행된 교과서인 國民小學讀本에서는 명사와 용언의 표기에서 分綴 규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스름을, 맛음을, 일흠을...), 동명사와 曲用的 표기에서는 혼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1933년의 ‘한글마춤법통일안’에서는 제3장 문법에 관한 것이라는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分綴 원칙을 밝히고 있다.

제7항 체언과 토가 어우를 적에는, 소리가 변하거나 아니하거나를 물론 하고, 다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떡이 떡을 떡에 ...)

제8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예: 먹다 먹고 먹어 먹으니 ...)

그런데 ‘신약’의 경우에는 분철, 연철, 그리고 혼철(중철)이 혼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분포 비율로 볼 때는 분철화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어두의 구개음 및 유음 표기

‘신약’에는 어두의 구개음 /ㄹ/과 어두의 유음/ㄹ/이 /ㅇ/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즉 두음법칙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4-1. 구개음 /ㄹ/ 표기

‘신약’에서는 어두의 구개음 /ㄹ/이 / ㄴ/ 모음 앞에서 두음법칙에 따라 /ㅇ/으로 표기되지 않고 /ㄹ/ 그대로 표기되고 있다.

요한이 니르러 광야에서 세례를 줄식 (1:4)
 요한은 약되 털을 입고 (1:6)
 그 그릇치심을 이상히 녀임은 (1:22)
 그 손을 잡아 니르키시니 (1:31)
 너인이 그들의게 슈종드더라 (1:31)
 예수 ㅣ 니러나서 한적흔 곳에 나가샤 (1:35)
 날으샤되 (1:38)
 중심에 아시고 날너 곁으샤되 (2:8)
 시장홀 제에 혼 일을 낚지못흐엿느뇨 (2:25)
 세상의 녀녀와 (4:19)
 열되 녀을 제에는 (4:29)
 두벌 옷은 낚지말라 (6:9)
 썩 낚곰 덩이를 가지샤 (8:6)
 낚사귀 잇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11:13)
 낚군 압헤 서서 증거하리니 (13:9)
 녀름이 갓가온줄을 알지라 (13:28)
 홍포를 낚히고 (15:17)

4-2. 유음 /ㄹ/ 표기

‘신약’에서는 어두의 유음 /ㄹ/이 / ㄴ, ㄷ, ㄱ, ㅌ / 앞에서 /ㄹ/, / ㄴ, ㄷ, ㄱ, ㅌ / 앞에서 /ㅇ/로 나타나는 두음법칙에 따라 표기되지 않고 /ㄹ/ 그대로 표기 되고 있다.

그 우에 림흐심을 보시고 (1:10)
 신랑이 리별홀 날이 니를터이니 (2:20)
 로즈도 가지지 말고 (6:8)
 량식도 말고 (6:8)

두음법칙은 단어의 첫머리 즉 어두에서 발음되는 음은 국어의 음운구조상의 제약이나 발음 습관상의 기피 현상에 기인하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세 경우를 들 수 있다.

- 1) 구개음 'ㄴ [ɲ]'이 어두에 오지 못하는 경우
- 2) 유음 '[r]'이 어두에 오지 못하는 경우
- 3) 자음군이 어두에 오지 못하는 경우

이 가운데 자음군이 어두에 오는 경우는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발행된 다른 문서의 기록을 살펴 보면 대체적으로 두음법칙이 지켜지고 있으나 완전히 지켜지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예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偉大한 文學運動은 일어날것이다 (동아일보, 1937. 10. 30. 金午星)
- 괴테에서 하이네에 이르기까지의 (朝光 23호, 1937. 9. 李雲谷)
- 머리가 좋으면 이발소에 가고 (朝光 24호, 1937. 11. 崔載瑞)
- 입안에서 도는 甘味를 닛지않으면서도 (")

李奭周(1990: 324-325)에 따르면 19세기말의 現實音은 두음법칙이 語頭に 나타나고 있으며, 1940년대에 오면서 두음법칙에 따른 표기로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약'의 경우 큰 차이를 보인다고는 할 수 없다.

5. /ㄷ, ㅌ/의 구개음화 표기

'신약'에는 /ㄷ, ㅌ/이 구개모음 /i, y (ㅣ, ㅟ, ㅠ, ㅛ, ㅠ)/ 앞에서 /ㅈ, ㅊ/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즉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더가 네 길을 (1:2)

턴스가 슈종드더라 (1:13)

더회는 어부라 (1:16)

밧갓 황무디에 거쳐하시나 (1:45)

선싱님의 데주는 금식하시아니하느뇨 하니 (2:18)

하느님의 던에 드러가서 (2:26)

예수 | 임의 더드려 널으시기를 (5:8)

다시 더편으로 건너가시매 (5:21)

다른 문서에 나타난 구개음화 현상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포의(布衣)는 임숙영(任淑英)을 가르쳐말함이었다

(朝光 1월호, 1938, 一聲生)

李基文(1961:196-198)에서는 口蓋音化란 i, y 앞에서 /ㄷ ㅌ ㅍ/이나 /ㅈ ㅊ ㅋ/이 /ㅅ ㅆ ㅈ/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는 17세기와 18세기의 交替期에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口蓋音化의 결과 18세기에는 /ㅅ ㅆ/은 /i, y/ 앞에서는 구개음으로, 다른모음들 앞에서는 종래대로 齒音으로 발음되었고, 후에는 /ㅅ ㅆ/이 모두 구개음으로 발음되게 되었다고 하였다.

19세기에 있어서는 口蓋音化의 현상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는 구개음화 현상이 적어도 표기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6. /ㄹ/ + /ㄹ/의 표기

‘신약’에서는 /ㄹ/ + /ㄹ/이 /ㄹ/ + /ㄹ/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루살넴 사롬이 다 나아가 (1:5)

요한은 약티 털을 닦고 (1:6)

나는 너희게 물노 세례를 주거니와 (1:8)

예수 | 갈닐리 나사렛으로브터 오샤 (1:9)

곳 물에서 올라오실시 (1:10)
 하늘이 갈나짐과 (1:10)
 하늘노셔 소리가 잇서 (1:11)
 서기관과 고티아니홈일너라 (1:22)
 더러운 귀신들닌 사롬이 잇서 소릭질너 (1:23)
 열병이 곳 물너가고 (1:31)
 널니 퍼지게 하니 (1:45)
 진실노 궤방하느 딸노 (3:28)
 귀신이 들넛다 혼 연고려라(3:30)
 심히 소릭질너 굴으딴 (10:48)
 예수 | 머물너 서서 굴으샤딴 (10:49)
 혼사롬이 썰니 가서 (15:36)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두 홀소리 사이에서 /ㄹ/이 /ㄹ/로만 소리나는 것은 /ㄹ/로 적고, /ㄹ/이 /ㄹ/으로만 소리나는 것은 /ㄹ/으로 적는다고 하였는데, '신약'에서는 /ㄹ/이 /ㄹ/로 소리나는 경우에도 /ㄹ/로 표기하지 않고, 여전히 /ㄹ/으로 표기하고 있다.

설측음의 표기에 대하여 李爽周(1990:326-327)에서는 /ㄹ/-/ㄹ/ 표기가 1920년대에는 /ㄹ/-/ㄹ/과 /ㄹ/-/ㄹ/의 두가지로 혼용되다가 1920년대 후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ㄹ/-/ㄹ/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런 현상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같은 시기의 다른 문서를 살펴보면 /ㄹ/ + /ㄹ/으로 표기된 경우와 /ㄹ/ + /ㄹ/로 표현된 두가지 경우가 나타난다.

6-1. /ㄹ/ + /ㄹ/으로 표기된 경우

· 다른 文化諸部門과 아울너서

(朝光 1937.9월호 p.92 '東京文化通信', 姜○佑)

· 質的으로 方向을 달니하야

(朝光 1937.9월호 p.92 '東京文化通信', 姜○佑)

· 끄러올니는 實務를 가졌다면

(朝光 1937.9월호 p.95 '文壇時語', 尹圭涉)

- 배시 가족을 주물너서 억지로 ...
- 수습할바를 물났는지
(朝光 1937.11월호 p.337-338 '最近文壇의 動向', 崔載瑞)
- 아올너 휴먼이즘의 復古主義를
(東亞日報 1937.9.16 '리얼리즘 文學發展論'(三), 金龍濟)

6-2. /ㄹ / + /ㄹ /으로 표기된 경우

- 각기 조금씩 立場을 달리하는 세사람의 ...
(朝光 1937.11월호 p.337 '最近文壇의 動向', 崔載瑞)
- 孤獨恐怖症에서 오는지는 몰라도 ...
(朝光 1937.11월호 p.339 '最近文壇의 動向', 崔載瑞)
- 그것이 한글로 되었다는
(東亞日報 1937.9.9 '朝鮮詩의 片影'(一), 金東錫)
- 마음속에서 낙거 올리는
(東亞日報 1937.10.1 '괴로운 愛着', 李大容)
- 물리치는 것이 아니요
(朝鮮日報 1937.9.2 '보-들레-르 死後 七十年紀念,
그의 生涯와 藝術的 態度', 李軒求)
- 내 바른便으로 갈러서더니
(朝鮮日報 1937.9.10 '어떤 畫家의 하로', 蔡萬植)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볼 때 /ㄹ / + /ㄹ /이 /ㄹ / + /ㄹ /로 변화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이 '신악' 뿐 아니라 다른 문서에서도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7. 순음 아래 /ㅡ/의 표기

'신악'에서는 순음 아래에 /ㅡ/모음이 /ㅏ/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원순모음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갈닐니 나사렛으로브터 오샤 (1:9)
 그동싱 안드레로 더브러 (1:16)
 그물을 바다에 던짐을 보시니 (1:16)
 허다흔 사롬이 갈닐니로브터 쫓치며 (3:8)
 비유를 베프러 굴으샤되 (3:23)

그런데 순음 아래의 /ㅡ/모음이 /ㅌ/로 바뀌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즉 원순모음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서로 무려 굴으되 (1:27)
 못사롬이 이상히 녀여 (1:27)
 열병이 곧 물너가고 (1:31)
 저물어 희질새에 (1:32)

李基文(1961:202)에서는 圓脣母音化는 近代語의 시기에 일어난 주목할만한 母音 變化의 하나로서 순음 /ㅁ ㅂ ㅍ ㅃ/ 아래의 모음 /ㅡ/가 원순화 되는 현상이라고 규정하였다(물→물). 이 변화는 문헌상으로는 17세기말의 譯語類解에서 확인되며(불, 무즈미ㅎ다, 붓다), 18세기 문헌에서 일반화 되었다. (同文類解: 불, 샬, 플, 누물 ...)

金亨奎(1975:160)에서는 ‘ㅌ母音化現象’이란 제목 아래, 脣音 아래 있던 /ㅡ/ 모음이 /ㅌ/ 모음으로 변하는 현상이 있으니 이는 근대에 들어 오면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ㅡ/모음으로 쓰이던 낱말이 근대어 후반에 이르러 /ㅌ/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며(플, 물, 뿌려 ...) 현대어에서는 거의 전부 /ㅌ/로 변했다고 밝히고 있다.

8. / ː / 표기

‘신약’에는 / ː /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

하느님의 아돌 (1:1)

기록헌 말숨에 (1:2)
 내 스자를 , 예비하리라 (1:2)
 소릭 잇서 웨쳐 굴으되 (1:3)
 곳게하라함과 고택 (1:3)
 광야에서 세례를 즐식 (1:4)
 회기하논 세례를 전파하야 (1:4)
 사룸이 만히 모혀들어 아모 용신히름이 업고 (2:2)
 혼련 손 무른 사룸이 (3:1)
 그르치시니 허다한 무리가 (4:1)
 비에서 나오시매 (5:2)
 고향으로 도라가실식 네즈들이 (6:1)
 썩 먹는 것을 (7:2)
 흠의하엿스나 (8:2)
 섯는 사룸 중에 (9:1)
 그르치시더니 (10:1)
 아모도 툰 사룸이 (11:2)
 말숨하샤되 혼사룸이 (12:1)
 선싱님이여 (13:1)
 제수제장과 (14:1)
 되답하야 굴으샤되 (15:2)
 미우 일족이 히돏을 (16:2)

金亨奎(1975)에서는 국어 모음 音素로서 시초부터 있었다고 보는 /, /음이 中期語 중간 시대부터 소멸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 /음의 소멸은 두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제 1단계는 非第1音節의 소멸이고, 여기서는 第2, 또는 第3音節에 있던 /, /음이 먼저 소멸하고, 다음 第1音節 /, /가 소멸하여 완전히 /, /음이 소멸하는데, /, /음의 완전 소멸은 18세기 끝으로 생각된다고 하였다.

/, /음의 제2단계 소멸은 18세기 후반에 일어나 19세기 초엽에 완성된 것으로 보는데, 19세기 초엽에 나온 柳僖의 『謠文志』(1824)에 “東俗不明於, 多混於卜(如兒事等字從, 今俗誤呼如阿豎) 亦或混一(如흠土 今讀爲흠土)”라고 했으니 이때에는 /, /음이 우리말에서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이익섭(1992:360-365)에 따르면 현대의 국어 표기법에 있어서는 1907년에 설치한 國文研究所가 관심을 갖고 논의하여 마련한 ‘國文研究議定案’에서 / . /를 계속 쓰기로 하였는데, 이는 문자의 保守性이 반영된 것이었으며, 1912년에 공포된 ‘普通學校用諺文綴字法’에서는 다시 / . /를 폐기하고 / ㅏ /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33년에 제정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 . /가 자모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처럼 한글의 모음 체계에서 소멸한 / . /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9. 이중모음(복모음)의 표기

‘신약’에는 /ㅅ,ㅈ/ 다음에 오는 /ㅑ, ㅕ, ㅛ, ㅟ/가 /ㅏ, ㅓ, ㅗ, ㅜ/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즉 복모음의 단모음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선지자 이사야의 (1:2)
 내 스자를 네압헤 보내리니 (1:2)
 더가 네길을 예비하리라 (1:2)
 주의 길을 예비하며 (1:3)
 그 첩경을 굳게 하라함과 갓치 (1:3)
 광야에서 세례를 줄식 (1:4)
 죄사함을 얻게 하니 (1:4)
 허리에 가죽띠를 찢고 (1:6)
 메썩이와 석청을 먹더라 (1:6)
 전파하야 골으되 (1:7)
 나사렛으로브터 오샤 (1:9)
 하눌노셔 소리가 잇서 골으샤되 (1:11)
 성신이 곳 예수를 모라 (1:12)
 너희의 밋음을 보시고 (2:5)
 예수썩서 (3:2)
 바다가에서 (4:1)
 제어홀 힘 (5:4)

거기를 써나샤 (6:1)

셔기관 몇치 (7:1)

모혀서 (8:1)

굴으샤되 (9:1)

거기서 (10:1)

南廣祐(1975:44-45)에서는 單母音化現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中世 文獻에서의 複母音이 오늘날 單母音으로 바뀐 것에는

ㅈ ㅉ ㅊ ㅅ ㅆ > ㅈ ㅉ ㅊ

ㅅ ㅆ > ㅅ

ㅈ ㅉ ㅊ ㅅ ㅆ (複母音) > ㅈ ㅉ ㅊ ㅅ ㅆ (單母音)

가 있는바 이들을 單母音化現象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中世語 以後 文獻에 보면 ‘ㅈ ㅉ ㅊ ㅅ ㅆ’ 등 複母音이 齒槽音 ㅅ 이나 口蓋音 ㅈ, ㅉ 과 결합된 ‘샤셔쇼슈셰시 자저조주제지 차처초추체치’表記의 말들이 나온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어에 있어선 外來語를 제외하고는 순우리말이나 漢文 말이나가 모두 ‘샤셔쇼슈셰시 자저조주제지 차처초추체치’로 발음되고 있다.

單母音化가 이루어진 시기에 관하여는 19세기말의 三聖事實(1880년刊)이나 太上感應篇(1880년刊), 턴로력당(1895년刊)에도 單母音化 例가 나오고, 字典釋要(1960년刊)에는 ‘寫沙俊준’과 같이 原音을 밝혀 있으면서 그 註에선 ‘글 시쥬사, 준걸준’과 같이 現實音으로 되어 있음에서 19세기말 이후에는 완전히 單母音化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라고 하였고, 다만 文獻의 保守性으로 新字典(1915년刊)이나 總督府辭典(1920년刊)에는 現實音 아닌 原音으로 複母音을 그대로 유지했을뿐이라고 하였다.

한편 김형규(1975:181)에 따르면 總督府에서 두번째로 발표한 諺文綴字法(1921)에서는 /ㅈ, ㅉ, ㅊ/아래 /ㅈ ㅉ ㅊ ㅅ ㅆ/음이 /ㅈ ㅉ ㅊ/로 바뀐 현상을 인정한 규정이 나오게 되었으며, ‘신약’이 간행된 1937년의 다른 문서의 기록들

에서는 복모음(이중모음)의 표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신약’에는 복모음(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10. 어휘 사용상의 특징 - 고어의 사용

‘신약’에 있어서의 어휘 사용상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고어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고어들을 ‘신약’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말숨(1:1)/소틱(1:3)/짜(1:5)/요한의게(1:5)/메썩이(1:6)/그 우에(1:10)/들
즙싱(1:13)/브리고(1:18)/조곰(1:19)/맞춤(1:24)/무숨(1:24)/문동병(1:240)
/아모(1:44)/밧겻(1:45) 등은 고어의 표기를 따르고 있는 경우의 예들이다.
이러한 ‘신약’의 어휘사용상의 특징은 1954년에 간행된 ‘구역’에서 표기만
바꾸어 그대로 유지되었고, 1956년에 간행된 ‘개역’에서 일부 변화를 가져오
게 되는 것이다.

당시의 다른 문서들에는 같은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신약’의 “말숨(1:1)”이 다른 문서에서는 “말숨”으로 표기되고 있다. 이는
/./가 폐지되면서 /—/로 바뀐 것이다.

· 그것을 좀 말숨하여 주시시오

(朝光 23호 1937.11. p.59 ‘作家와 批評家의 辯’, 李泰俊)

‘신약’의 “짜(1:5)”는 다른 문서에서 “땅”으로 표기되었다.

· 이 땅의 社會史에 있어서의

(朝光 1937.9월호 p.3 ‘古典에의 歸還’, 金南天)

‘신약’의 “아모(1:44)”는 다른 문서에서도 “아모”로 표기되었다.

· 아모것도 안일것이다

· 아모 反響이 없는 ...

(朝光 23호 1937.11. p.55 '時代的 自覺과 反省', 李源朝)

‘신약’의 “우(1:10)”는 다른 문서에서도 역시 ‘우’로 표기되고 있다.

· 그 우에 서 있다

(朝光 1937.9월호 p.4 '古典에의 歸還', 金南天)

‘신약’의 “조곰(1:19)” 역시 다른문서에도 같은 표기를 보여주고 있다.

· 內容은 조곰도 보잘것이없는것이었으나

(朝光 1937.11월호 p.232 '人間問題를 中心하야', 白鐵)

신약 (1937)	구역(1954)	개역(1956)	현대어(1991)	표준(1993)
말씀(1:1)	말씀	글	글	글
소릿(1:3)	소리	소리	--	소리
굴으딴(1:3)	가로되	가로되	--	--
첩경(1:3)	첩경	--	--	길
짜(1:5)	땅	지방	지방	지방
약딴(1:6)	약대	약대	낙타	낙타
메뚜기(1:6)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	메뚜기
석청(1:6)	석청	석청	들굴	들굴
신들메(1:7)	신들메	신들메	신발끈	신발끈
오샤(1:9)	오사	와서	오셔서	오셔서
비둘기(1:10)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
그 위에(1:10)	그 위에	자기에게	자기에게	자기에게
들짐승(1:13)	들짐승	들짐승	들짐승	들짐승
천사(1:13)	천사	천사	천사	천사
버리고(1:18)	버리고	버려두고	버리고	버리고
조금(1:19)	조금	조금	조금	조금
마침(1:23)	마침	마침	--	그 때
무슨(1:24)	무슨	무슨	무슨	--
여짜온대(1:30)	여짜온대	여짜온대	알려드리자	말씀드렸다
문둥병(1:40)	문둥병	문둥병	나병환자	나병환자
아무(1:44)	아무	아무	아무	아무
바깥(1:45)	바깥	바깥	외딴곳	바깥
수일(2:1)	수일	수일	며칠	며칠
소문(2:1)	소문	소문	소문	말
지붕(2:4)	지붕	지붕	지붕	지붕
마음(2:6)	마음	마음	속	마음
제자(2:18)	제자	제자	제자	제자

신약 (1937)	구역(1954)	개역(1956)	현대어(1991)	표준(1993)
전(2:26)	전	전	전	집
진설병(2:26)	진설병	진설병	진설병	제단빵
송스(3:2)	송사	송사	고소	고발
완악함을(3:5)	완악함을	완악함을	마음이 굳어	마음이 굳어
핍근(3:10)	핍근	핍근	밀려 들었기	밀려들었기
아들(3:11)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이름(3:16)	이름	이름	이름	이름
우뢰(3:17)	우뢰	우뢰	우레	천둥
친속(3:21)	친속	친속	친척	친척
샤귀(3:22)	사귀	귀신	귀신	귀신
사단(3:23)	사탄	사단	사단	사탄
늑탈(3:27)	늑탈	늑탈	털어가려면	털어갈
돌작발(4:5)	돌작발	돌발	돌발	돌작발
핍박(4:17)	핍박	핍박	박해	박해
재리(4:19)	재리	재리	재물	재물
말(4:21)	말	말	뒷박	뒷박
평상(4:21)	평상	평상	침상	침상
광풍(4:37)	광풍	광풍	거센폭풍	광풍
돼지(5:11)	돼지	돼지	돼지	돼지
회당어른(5:22)	회당어른	회당장	회당장	회당장
실상(5:33)	실상	사실	한일 그대로	사실
원화(5:38)	원화	원화	--	--
통곡(5:38)	통곡	통곡	통곡	통곡
으희(5:40)	아이	아이	아이	아이
열두살(5:42)	열두살	열두살	열두살	열두살
누이(6:3)	누이	누이	누이	누이
로즈(6:8)	노자	--	--	--
집황이(6:8)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	지팡이

신약 (1937)	구역(1954)	개역(1956)	현대어(1991)	표준(1993)
전대(6:8)	전대	전대	자루	전대
먼지(6:11)	먼지	먼지	먼지	먼지
아내(6:17)	아내	아내	아내	아내
탄일(6:21)	탄일	생일	생일날	생일
소반(6:25)	소반	소반	쟁반	쟁반
이백량(6:37)	이백냥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이백데나리온
사나히(6:44)	사나이	남자	남자	남자어른
요물(6:49)	요물	유령	유령	유령
저주(6:56)	저자	시장	--	장터거리
주발(7:4)	주발	주발	단지	단지
입술(7:6)	입술	입술	말	입술
광패(7:22)	광패	광패	어리석은 죄	어리석음
요(7:30)	요	침상	자리	침대
춤(7:33)	춤	춤	춤	춤
바구니(8:8)	바구니	광주리	바구니	광주리
힐난(8:11)	힐난	힐난	--	시비
하늘(8:11)	하늘	하늘	하늘	하늘
징조(8:11)	징조	표적	표징	표적
선지자(8:28)	선지자	선지자	예언자	예언자
아버지(8:38)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상급(9:41)	상급	상	상	상
돌멩이(9:42)	돌매	연자맷돌	연자맷돌	연자맷돌
영쌍(9:46)	영생	영생	하나님 나라	생명
소금(9:50)	소금	소금	소금	소금
휴서(10:4)	휴서	이혼증서	이혼장	이혼장
장가(10:11)	장가	장가	결혼	장가
식집(10:12)	시집	시집	결혼	시집
지아비(10:12)	지아비	남편	남편	남편

신약 (1937)	구역(1954)	개역(1956)	현대어(1991)	표준(1993)
간난(10:21)	가난	가난	가난	가난
직물(10:22)	재물	재물	부자	재산
약타(10:25)	약대	약대	낙타	낙타
결안(10:33)	결안	결안	--	--
납군(10:42)	임금	집권자	왕	다스리는사람
대인(10:42)	대인	대인	지위가 높은자	고관
소경(10:46)	소경	소경	맹인	눈먼
라귀(11:2)	나귀	나귀	나귀	나귀
새끼(11:2)	새끼	새끼	새끼	새끼
굴혈(11:17)	굴혈	굴혈	소굴	소굴
혐의(11:25)	혐의	혐의	서로 등진일	등진일
산울(12:1)	산울	산울	울타리	울타리
망닥(12:1)	망대	망대	망대	망대
장인(12:10)	장인	건축자	집짓는 이	집을짓는사람
훈훈(12:15)	한푼	데나리온	데나리온 하나	데나리온한낱
형극(12:26)	형극	가시나무떨기	가시덤불	떨기나무
문안(12:38)	문안	문안	인사	인사
련명(12:44)	연명	생활비	가진 것 전부	생활비전부
민요(14:2)	민요	민요	군중 소동	백성 소동
샤쳐방(14:14)	사쳐방	객실	음식먹을 방	사랑방
환도(14:43)	환도	검	칼	칼
몽치(14:43)	몽치	몽치	몽둥이	몽둥이
얼굴(14:65)	얼굴	얼굴	얼굴	얼굴
비즈(14:66)	비자	비자	여중	하녀
히용(15:36)	해용	해용	해면	해면
의관(15:43)	의관	공회원	의회원	의회의원
향숙(16:1)	향숙	향품	향료	향료
빅암(16:18)	뱀	뱀	뱀	뱀

11. 외래어의 표기 ²⁾

11-1. 외국 인명

‘신약’에는 다음과 같은 외국 인명이 나타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1:1) / Jesus Christ / Ιησου Χριστου
이사야 (1:2) / Isaiah / Ησαια
요한 (1:4) / John / Ιωαννης
시몬 (1:16) / Simon / Σιμων
안드레 (1:16) / Andrew / Ανδρεαν
세베대 (1:19) / Zebedee / Ζεβεδαιον
야고보 (1:19) / James / Ιακβον
모세 (1:44) / Moese / Μωυσησ
알패오 (2:14) / Alphaeus / Αλφαιον
레위 (2:14) / Levi / Λευιν
다윗 (2:25) / David / Δαυιδ
아비아달 (2:26) / Abiathar / Αβιαδαρ
헤롯 (3:6) / Herod / Ηρωδιανων
보아너게 (3:17) / Boanerge / Βοανηγερεσ
빌립 (3:18) / Philip / Φιλιππον
바돌노매 (3:18) / Bartholomew / Βαρθολομαιον
마태 (3:18) / Matthew / Μαθθαιον
도마 (3:18) / Thomas / Θωμαν
다대오 (3:18) / Thaddaeus / Θαδδαιον
유다 (3:19) / Judas / Ιουδαν
바알세불 (3:22) / Beelzebub / Βεελζεβουλ

2) 영문 표기는 N.I.V. Holy Bible(Zondervan, Grand Rapids, Michigan, 1978)을 참고했고, 그리스어 표기는 NOVUM TESTAMENTUM GRAECE, Nestle-Aland, Germany, 1979)을 참고하였다.

사단 (3:23) / Satan / σατανας
 야이로 (5:22) / Jairus / Ιαιρουσ
 요세 (6:3) / Joses / Ιωσηπος
 마리아 (6:3) / Mary / Μαριασ
 엘리야 (6:15) / Elijah / Ηλιασ
 헤로디아 (6:17) / Herodia / Ηρωδια
 베드로 (10:28) / Peter / Πετροσ
 바디매오 (10:46) / Bartimaeus / Βαρτιμαιος
 가이사 (12:16) / Caesar / Καισαρος
 아브라함 (12:26) / Abraham / Αβρααμ
 이삭 (12:26) / Isaac / Ισαακ
 야곱 (12:26) / Jacob / Ιακωβ
 빌라도 (15:4) / Pilate / Πιλαδος
 바라바 (15:7) / Barabbas / Βαραββας
 알렉산더 (15:21) / Alexander / Αλεξανδρου
 루포 (15:21) / Rufus / Ρουφου
 살로메 (15:40) / Salome / Σαλωμη

11-2. 외국 지명

‘신약’에는 다음과 같은 외국 지명이 나타나고 있다.

유대 (1:5) / Judean / Ιουδαια
 예루살렘 (1:5) / Jerusalem / Ιεροσολυμιται
 요단 (1:5) / Jordan / Ιορδανη
 갈릴니 (1:9) / Galilee / Γαλιλαιας
 나사렛 (1:9) / Nazareth / Ναζαρετ
 가버나움 (1:21) / Capernaum / Καφαρναουμ
 이두매 (3:8) / Idumea / Ιδουμαιας
 두로 (3:8) / Tyre / Τυρον
 시돈 (3:8) / Sidon / Σιδωνα
 가나안 (3:18) / Zealot / Καναναιου
 가롯 (3:19) / Iscariot / Ισκαριωθ

거라사 (5:1) / Gerasenes / Γερασσηνων
 데가볼리 (5:20) / Decapolis / Δεκαπολει
 벳새다 (6:45) / Bethsaida / Βηθσαιδαν
 게네사렛 (6:53) / Gennesaret / Γεννησαρετ
 헬나 (7:26) / Greek / Ελληνισ
 수로보니게 (7:26) / Syrian Phoenicia / Συροφουινικισσα
 달마누다 (8:10) / Dalmanutha / Δαλμανουθα
 가이사랴 (8:27) / Caesarea / Καισαρειας
 빌립보 (8:27) / Philippi / Φιλιππου
 세베대 (10:35) / Zebedee / Ζεβεδαίου
 여리고 (10:46) / Jericho / Ιεριχω
 벳바게 (11:1) / Bethphage / Βηθφαγη
 벳아니 (11:1) / Bethany / Βηθανιαν
 겟세마네 (14:32) / Gethsemane / Γεθσημανι
 구레네 (15:21) / Cyrene / Κυρηναιον
 골고다 (15:22) / Golgotha / Γολγοθαν
 이스라엘 (15:32) / Israel / Ισραηλ
 아리마대 (15:43) / Arimathea / Αριμαθαιας

11-3. 기타

‘신약’에는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외래어가 나타나고 있다.

달니다굼 (5:41) / Talitha Koum / ταλιθακουμ
 고르반 (7:11) / Corban / κορβαν
 에바다 (7:34) / Ephphatha / εφφαθα
 호산나 (11:9) / Hosanna / ωσαννα
 엘니 엘니 라마 사박다니 (15:34) / Eloi Eloi Lama Sabachthani /
 ελωι ελωι λεμα σαβαχθανι

이상의 기록을 통해 볼 때 ‘신약’에 있어서 외래어 표기상의 특징으로는 첫째, 원음에 가까운 표기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동일 기록 내의 다른 표기와는 달리 외래어에서만 / . /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ㄴ/의 표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기타는 당시의 다른 기록물과 같은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Ⅲ. 형태상의 특징

1. 조사

李周行(1992)에서는 조사(助詞)는 주로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에 결합하여 그 체언이 문장 중의 단어와 맺는 관계를 나타내거나, 체언의 뜻을 한정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단어들이라고 정의하였다. 특히 격조사는 주로 체언에 붙어서 격을 나타내는 조사로서 그 체언이 다른 단어와 맺는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라고 하였다.

격조사에 대한 분류는 문법론자에 따라 차이점이 있는데, 대표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최현배 (1975 : 615-635) : 임자자리토(主格助詞), 매김자리토(冠形格助詞), 어찌자리토(副詞格助詞), 부림자리토(目的格助詞), 부름자리토(呼格助詞), 기움자리토(補格助詞) 등 6개로 분류했다.

② 金亨奎 (1962 : 149-150) : 주어토, 객어토, 수식토, 한정어토, 독립어토, 서술어토로 나눈 뒤, 다시 객어토는 목적토와 보충토로, 한정토는 여격, 탈격, 처격, 대격 등으로 나누고 있다.

③ 李翹燮, 任洪彬 (1983 : 135-161) : 주격조사(主格助詞), 대격조사(對格助詞), 속격조사(屬格助詞), 처격조사(處格助詞), 구격조사(具格助詞), 공동격조사(共同格助詞) 등 6개로 분류했다.

④ 남기심, 고영근 (1985 : 95-98) : 주격, 서술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 등 7개로 분류했다.

⑤ 이주행 (1992:147-148, 229, 232) : 격을 그 기능이나 의미에 따라 분류하였는 바 기능에 따라서는 주격(主格), 보격(補格), 목적격(目的格), 서술격(敍述格), 관형격(冠形格), 부사격(副詞格), 독립격(獨立格) 등으로 분류하였고, 의미에 따라서는 행위자격(agent), 대상격(object), 결과격(result), 구격(instrument), 원천격(source), 목표격(goal), 경험자격(experiencer), 처격(locative), 공동격(comitative) 등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⑤의 분류 방법에 따라 분류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1. 주격

주격은 체언이 서술어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으로서 현대 국어에서는 격조사 “이/가”가 주격을 표시하는데 쓰인다.

한편 ‘신약’에서는 “이, 가, - 1, -의서” 등이 사용되고 있다.

1-1-1. “-이”

‘신약’에서 주격 조사로 자음 뒤에서는 “-이”를 사용하였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요한이 니르러 (1:4)

예루살렘 사룸이 다 나아가 (1:5)

하늘이 갈나짐과 (1:10)

성신이 비둑이 모양으로 느려 (1:10)

성신이 곳 예수를 모라 (1:12)

요한이 잡힌 후에 (1:14)

괴약이 임의 니르렀고 (1:15)

시몬이 그 동쌍 안드레로 더브러 (1:16)

못사룸이 그 그르치심을 이상히녁임은 (1:22)

그 그르치는 것이 권세잇는자와 고토 (1:22)

더러운 귀신들님 사룸이 잇서 (1:23)

더러운 귀신이 그 사룸을 오그러터리고 (1:26)

못사룸이 이상히녁여 (1:27)

예수의 소문이 온갈닐니 수방에 퍼지더라 (1:28)

혹이 곳 예수희 엇즌온디 (1:30)

열병이 곳 물너가고 (1:31)

녀인이 그들의게 슈종드더라 (1:31)

온성이 문압헤 모히거늘 (1:33)

시몬과 혼가지 잇는 사룸이 (1:36)

모든 사룸이 주를 찾느이다 (1:37)

곳 문동병이 썩나가고 그 사룸이 짝긱흔지라 (1:42)

1-1-2. “-가”

‘신약’에서 주격 조사로 모음 뒤에서는 “-가”를 사용하였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내가 내 스자를 (1:2)
더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1:2)
내 뒤에 오시논이가 (1:7)
하늘노서 소리가 잇서 (1:11)
턴스가 슈종드더라 (1:13)
하느님나라가 갓가왔스니 (1:15)
내가 너희로 사롬을 낙논 어부가 되게 하리라 (1:17)
더희가 가버나움에 드러가니 (1:21)
우리가 너로 더브러 무숨 상관이 잇느뇨 (1:24)
더희가 순종한다하니 (1:27)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엇는지라 (1:30)
우리가 다른 갓가온 마을에 가자 (1:38)
내가 오기는 이를 위함이로다 (1:38)
문동병든자가 예수희 나아와 (1:39)
내가 하고져하노니 (1:41)

1-1-3. “- |”

‘신약’에서 “예수” 다음에 오는 주격 조사로서 “- |”가 사용된 경우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그 제에 예수 | 갈닐니 나사렛으로브터 오샤 (1:9)
예수 | 갈닐니에 니르러 (1:15)
예수 | 굴으샤되 나를 쫓라오너라 (1:17)
예수 | 꾸지져 굴으샤되 (1:25)
예수 | 오샤 (1:31)
예수 | 니러나서 (1:35)

예수 | 민망히넘이사 (1:41)

예수 | 완전히 성에 드러가지못하시교(1:45)

1-1-4. “-썌셔”

‘신약’에서 주어를 존대하고자 할 때 주격 조사로 “-썌셔”가 사용되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안식일에 예수썌셔 회당에 드러가샤 (1:21)

예수썌셔 각속 병든 허다한 사람을 곳치시며 (1:34)

주썌셔 만일 호고저하시면 (1:39)

예수썌셔 곳 중심에 아시고 (2:8)

1-2. 보격

보격은 체언이 보어임을 나타내는 격으로서 현대 국어에서 보격 조사로는 “이/가, 와/과, (으)로”가 사용되고 있다.

1-2-1. “-이”

‘신약’에서 자음으로 종결된 체언의 보격 조사로는 “이”가 사용되었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것이 아니오 (2:17)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느니라 (2:28)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4:28)

시몬의 형이 아니며 (6:3)

1-2-2. “-가”

‘신약’에서 모음으로 끝난 체언의 보격 조사로는 “가”를 사용하였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내가 너희로 사롬을 낙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17)

비유가 아니면 말숨을 아니하시코 (4:34)

1-3. 목적격

목적격은 선행어가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조사로서 어떤 동작이나 작용이 미치는 대상을 지시하는 조사이다. 현대 국어에서는 목적격 조사로서 “을/를”이 사용되고 있다.

‘신약’에서도 목적격 조사로서 “을/를”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3-1. “-을”

‘신약’에서 자음으로 끝난 체언의 목적격 조사로는 “을”을 사용하였다.

더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1:2)

주의 길을 예비하며 (1:3)

그 첩경을 곳게하라 (1:3)

죄샤함을 엇게하니 (1:4)

메쪽이와 석청을 먹더라 (1:6)

그 우에 림하심을 보시더니 (1:10)

광야에서 스십일을 계셔서 (1:13)

사단의게 시험을 밋으시며 (1:13)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야 골으샤되 (1:14)

복음을 밋으라 (1:14)

그물을 바다에 던짐을 보시니 (1:16)

내가 너희로 사롬을 낙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17)

그물을 브리고 좇치니라 (1:18)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싱 요한을 보시니 (1:19)

더회도 비에 잇서 그믐을 갑닌디 (1:19)
 그 아비 세배대와 삭군들을 비에 두고 (1:20)
 못사름이 그 그릇치심을 이상히녁임은 (1:22)
 나는 내가 누구인줄을 아노니 (1:24)
 입을 봉하고 (1:25)
 더러운 귀신이 그 사름을 오그러터리고 (1:26)
 권세로 더러운 귀신들을 명함매 (1:27)
 그 손을 잡아니르키시니 (1:31)
 예수씩서 각식 병든 허다흔 사람을 곳치시며 (1:34)
 샤귀의 말하느 것을 허락지아니심은 (1:34)
 손을 펴서 문지시며 (1:41)
 썩굿흠을 밧으라 함신디 (1:41)
 제사장의게 네 몸을 보이고 (1:44)
 썩굿흠을 인함야 (1:44)
 모세의 명혼 레물을 드려 (1:44)

1-3-2. “-를”

‘신약’에서 모음으로 끝난 체언의 목적격 조사로는 “를”이 사용되었다.

내가 내 스자를 (1:2)
 광야에서 세례를 즐식 (1:4)
 제 죄를 즈복하고 (1:5)
 요단강에서 요한의게 세례를 밧더라 (1:5)
 허리에 가죽씩을 씌고 (1:6)
 그의 신들매를 푸는것도 (1:7)
 나는 너희게 물노 세례를 주거니와 (1:8)
 그는 성신으로 너희게 세례를 주시리라 (1:8)
 요단강에서 세례를 요한의게 밧으시고 (1:9)
 성신이 곳 예수를 모라 (1:12)
 예수 | 굴으샤디 나를 썩라오너라 (1:17)
 예수를 좇치니라 (1:20)

우리를 멸하려 왔노 (1:24)
 큰소리를 지르며 나오거늘 (1:26)
 모든 병든자와 사귀들린자를 다리고 (1:32)
 허다한 사귀를 내어 쫓치시니 (1:34)
 주기를 얹으라 (1:34)
 모든 사람이 주를 찾노이다 (1:37)
 거기서도 도를 전파하시니 (1:38)
 내가 오기는 이를 위함으로다 (1:38)
 도를 전파하시고 또 사귀를 내어쫓치시더라 (1:39)
 능히 저를 짊어지게 하시리이다 (1:40)

1-4. 관형격(속격)

관형격(속격)은 선행어가 관형어임을 나타내는 조사로서 속격, 또는 소유격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현대 국어에 있어서 “의”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두 명사를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통상적 관계로 묶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신약’에서 관형격(속격)으로는 “의/- l”가 사용되고 있다.

1-4-1. “-의”

‘신약’에서 관형격 조사로 “의”가 사용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 (1:1)
 복음의 시작 (1:1)
 이사야의 기록한 말씀에 (1:2)
 주의 길을 예비하며 (1:3)
 그의 신들매를 푸는것도 (1:7)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골고려사되 (1:1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보시니 (1:19)
 하나님의 거룩한자니라 (1:24)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니 수방에 퍼지더라 (1:28)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드려가시니 (1:29)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었는지라 (1:30)

샤귀의 말하느 것을 허락지아니심은 (1:34)

1-4-2. “- |”

‘신약’에 관형격 조사로서 “- |”가 축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축약형으로는 “나 + |”, “너 + |”, “저 + |” 등이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내가 내 수자를 (1:2)

네 압해 보내리니 (1:2)

더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1:2)

제 죄를 주복하고 (1:5)

내 뒤에 오시논이가 (1:7)

너는 내 사랑하느 아돌이오 (1:11)

내 깃버하느자라 (1:11)

1-5. 서술격

서술격 조사는 체언에 결합되어 그 체언이 서술어임을 나타내는 조사로서 체언으로 하여금 주어의 내용에 대하여 서술하는 기능을 하게 하는 조사인데, “이다”가 여기에 해당한다.

‘신약’에서 서술격 조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다음의 예를 통해 볼 수 있다.

1-5-1. 연결형

1-5-1-1. “-이니”

‘신약’에서 연결형의 서술격 조사로 “이니”가 사용되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니 (1:1)
술과 부터를 브림이니 (2:22)
도를 뿌리는 것이니 (4:14)
내 사랑하논 아들이니 (9:7)
들이 아니오 혼몸이니 (10:8)
너희게 무를 것이니 (11:29)
둘재는 이 것이니 (12:31)
절기에는 못홀 것이니 (14:2)
곳 안식일전날이니 (15:42)
죄를 덩홀 것이니 (16:16)

1-5-1-2. “-일너니”

‘신약’에서 연결형의 서술격 조사로 “일너니”가 사용되었다.

성히리라 흠일너니 (5:28)
뎡기를 즐거워흠일너니 (6:20)

1-5-1-3. “-이러니”

‘신약’에서 연결형의 서술격 조사로 “이러니”가 사용되었다.

누가 크뇨 흠이러니 (9:34)

1-5-1-4. “-이나”

‘신약’에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형의 서술격 조사로 “-이나”가 사용되었다.

뛰워흠을 밧을 것이나 (13:39)

1-5-1-5. “-이시니”

‘신약’에서 존대의 대상에 대한 연결형의 서술격 조사로 “이시니”가 사용되었다.

우리 하느님이시니 (12:29)

1-5-1-6. “-(이)요”

‘신약’에서 연결형의 서술격 조사로 “(이)요”가 사용되었다.

내 누의요 내 모친이니라 (3:35)

닐곱 바금ियो (8:8)

1-5-2. 종결형

1-5-2-1. “-이오”

‘신약’에서 종결형의 서술격 조사로 “이오”가 사용되었다.

므오에 쏜린 도를 빼앗는 것이오 (4:15)

핍박을 당혼즉 곳 슬허브림이오 (4:17)

결실치못하게 됨이오 (4:19)

힘잇는 사툼이 업슴이오 (5:4)

그 녀인은 헬나 사툼이오 (7:26)

곳 나를 영접함이오 (7:37)

본처의게 간음을 킁함이오 (10:11)

하늘에 보화가 잇슬 것이오 (10:21)

겹하야 밧을 것이오 (10:30)

채씩질하고 죽일 것이오 (10:34)

구원을 엇을 것이오 (16:16)

1-5-2-2. “-이라”

‘신약’에서 종결형의 서술격 조사로 “이라”가 사용되었다.

사롬이 만히 잇서서 예수를 좃침이라 (2:15)

군티가 집혔던 사롬이라 (5:15)

대개 바람이 거스림이라 (6:48)

헛되이 나를 경비하느니라 (7:7)

하느님의 드렸다는 말이라 (7:11)

하느님의 도를 폐함이라 (7:13)

다 씹긋다 함이라 (7:19)

수로보니게족속이라 (7:26)

우리 눈에 괴이함이라 (12:11)

하느님의 도를 그릇함이라 (12:14)

번역하면 히골 곳이라 (15:22)

1-5-2-3. “-이러라”

‘신약’에서 종결형의 서술격 조사로 “이러라”가 사용되었다.

조그를 얹이러라 (1:34)

에워쌌을 면코져함이라 (3:9)

그 사롬의게서 나오라 함이라 (5:8)

썩 췌여주시던 일을 썩지못함이라 (6:52)

늦 그릇을 씌움이라 (7:4)

무리를 두려워함이라 (12:12)

에워쌌을 면코져함이라 (3:9)

1-5-2-4. “-일너라”

‘신약’에서 종결형의 서술격 조사로 “일너라”가 사용되었다.

더희 딸이 그가 밋챜다 흙일너라 (3:20)

더희가 심히 무셔워흙일너라 (9:6)

그를 두려워흙일너라 (11:18)

사롬을 밋지아님일너라 (16:14)

1-5-2-5. “-러라”

‘신약’에서 종결형의 서술격 조사로 “러라”가 사용되었다.

이는 예수를 잡아준자러라 (3:19)

귀신이 들녔다 혼 연고러라 (3:30)

1-5-2-6. “-이니라”

‘신약’에서 종결형의 서술격 조사로 “이니라”가 사용되었다.

십비도 되고 빅비도 됴이니라 (4:20)

너희도 헤아림을 밧을 것이니라 (4:24)

거들재가 니름이니라 (4:29)

뒤로 내여브림이니라 (7:19)

또흔 간음을 킁흙이라 (10:12)

그가 엇을 것이니라 (10:40)

속죄하야주려흙이니라 (10:45)

이는 직난의 시작이니라 (13:8)

1-5-2-7. “-이더라”

‘신약’에서 종결형의 서술격 조사로 “이더라”가 사용되었다.

썩을 먹은 사나희가 오천명이더라 (6:44)

1-5-2-8. “-이로다”

‘신약’에서 종결형의 서술격 조사로 “이로다”가 사용되었다.

이 권능을 힘함으로 (5:14)

1-5-2-9. “-이니이다”

‘신약’에서 존대의 대상에게 대한 서술격 조사로 “이니이다”가 사용되었다.

우리가 만함이니이다 (5:9)

굴으되 열들이니이다 (8:19)

굴으되 뉘꿈이니이다 (8:20)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12:16)

혁신 말씀이 참 말씀이니이다 (12:32)

1-5-2-10. “-이시라”

‘신약’에서 존대의 대상에 대한 종결형의 서술격 조사로 “이시라”가 사용되었다.

쥬쥬서 혼분이시라 (12:29)

1-5-2-11. “-시니이다”

‘신약’에서 존대의 대상에 대한 종결형의 서술격 조사로 “시니이다”가 사용되었다.

쥬는 그리스도시니이다 (8:29)

1-5-2-12. “-이시니라”

‘신약’에서 존대의 대상에 대한 종결형의 서술격 조사로 “이시니라”가

사용되었다.

오직 생신이니라 (13:11)

1-5-2-13. “-이냐”

‘신약’에서 의문형 서술격 조사로 “이냐”가 사용되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3:33)

내 일흠이 무엇이냐 (5:9)

무슨 말이냐 (9:23)

서로 다룬 것이 무엇이냐 (9:33)

이 화상과 글이 뉘 것이냐 (12:16)

1-5-2-14. “-이뇨”

‘신약’에서 의문형 서술격 조사로 “이뇨”가 사용되었다.

무슨 뜻이뇨 (9:10)

하느 말이 엇짐이뇨 (9:11)

굴으되 엇짐이뇨 (15:14)

1-6. 부사격

부사격 조사는 체언에 결합되어 그 체언이 부사어임을 지시해 주는 조사이다. 즉 체언으로 하여금 부사어가 되게하는 조사이다. 부사격 조사는 의미에 따라 처격 조사, 여격 조사, 구격 조사, 공동격 조사, 비교격 조사 등으로 세분된다.

1-6-1. 처격

‘신약’에서 처격으로는 “에, 에서, 서, 토(노), 으로, 으로서, 토브터, 으토브터, 의게서” 등이 사용되었다.

1-6-1-1. “-에”

이사야의 기록한 말숨에 (1:2)
네 압헤 보내리니 (1:2)
광야에 소위 잇서 (1:3)
허리에 가죽띠를 찢고 (1:6)
내 뒤에 오시논이가 (1:7)
그 세에 예수 | 갈닐니 나사렛으토브터 오샤 (1:9)
그 우에 림함심을 보시더니 (1:10)
광야에 나가게 하시니 (1:12)
예수 | 갈닐니에 니르러 (1:14)
갈닐니 해변에 행하시다가 (1:16)
그물을 바다에 던짐을 보시니 (1:16)
더회도 빈에 잇서 그물을 김논되 (1:19)
그 아비 세베대와 삭군들을 빈에두고 (1:20)
더회가 가버나움에 드러가니 (1:21)
안식일에 예수희서 회당에 드러가샤 (1:21)
예수의 소문이 온갈닐니 수방에 퍼지더라 (1:28)
시몬과 안드래의 집에 드러가시니 (1:29)
져들어 히질제에 (1:32)
새벽 오히려 미명에 (1:35)
한적한 곳에 나가샤 (1:35)
우리가 다른 갓가온 마을에 가자 (1:38)
온 갈닐니에 돈니시며 그 회당에 드러가샤 (1:39)
예수 | 완전히 성에 드러가지 못하시고 (1:45)
밧갓 황무디에 거처하시나 (1:45)

1-6-1-2. “-에서”

광야에서 세례를 즐식 (1:4)
 요단강에서 요한의게 세례를 밧더라 (1:5)
 요단강에서 세례를 요한의게 밧으시고 (1:9)
 곳 물에서 올라오실식 (1:10)
 하눌노셔 소리가 잇서 (1:11)
 광야에서 수십일을 계셔서 (1:13)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들닌 사뭇이 잇서 (1:23)
 회당에서 나와 (1:29)
 수방에서 예수씨로 나아오더라 (1:45)

1-6-1-3. “-셔”

거기셔도 도를 전파하리니 (1:38)
 어딴셔든지 뉘집에 드러가거든 (6:10)
 거기셔 썸날 재에 (6:11)

1-6-1-4. “-로(노)”

바다로 썸나가시니 (3:10)
 뒤로 그 옷을 문지기는 (5:17)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하시코 (6:45)
 빅로 드러가매 뒤로 내여브림이니라 (7:19)
 마을노 드러가지 말나 (8:26)

1-6-1-5. “-으로”

무리를 썸나 집으로 드러가시니 (7:17)
 이는 므옴으로 드러가지 아니하코 (7:19)
 시돈 디경으로 썸나 (7:24)
 또 바다 건너편으로 와서 (5:1)
 바다 우으로 그 거러오심을 보고 (6:49)
 더회가 수방으로 두루 쌍에 니르러 (6:55)

1-6-1-6. “-으로서”

시돈으로서 데가불리 디경 가운데로 말미암아 (8:31)

1-6-1-7. “-로브터”

즈기로브터 나간줄을 곳 아시고 (5:30)

저즈로브터 도라와서 (7:4)

태초로브터 남녀를 몬드셴스니 (10:6)

1-6-1-8. “-으로브터”

예루살넴으로브터 내려온 서기관이 (3:22)

무덤으로브터 나와서 만난지라 (5:2)

서기관 몇치 예루살넴으로브터 (7:1)

오직 안으로브터 나오는 것은 (7:16)

밧그로브터 드러가는 것이 (7:18)

1-6-1-9. “-의게서”

사롬의게서 나오는 것이 (7:20)

즈녀의게서 찢러지논 (8:28)

샤귀가 임의 네 쫄의게서 찢낫스니 (8:29)

그 ㅎ히의게서 나오고 (9:25)

1-6-2. 여격

‘신약’에서 여격으로는 “의게, 게, 쉼, 드려”가 사용되었다.

1-6-2-1. “-의게”

‘신약’에서 자음으로 종결되는 체언의 여격으로는 “의게”가 사용되었다.

요단강에서 요한의게 세례를 받더라 (1:5)
요단강에서 세례를 요한의게 받더라 (1:9)
사단의게 시험을 받으시며 (1:13)
너인이 그들의게 슈종드더라 (1:31)
삼가 아모 사롬의게도 말하지말고 (1:44)
제스장의게 네몸을 보이고 (1:44)

1-6-2-2. “-게”

‘신약’에서 모음으로 종결되는 체언의 여격으로는 “게”가 사용되었다.

나는 너희게 물노 세례를 주거니와 (1:8)
그는 성신으로 너희게 세례를 주시리라 (1:8)
예수 | 너희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2:2)
내가 진실노 너희게 낚으노니 (8:12)
너희게 낚으노니 (9:41)

1-6-2-3. “-의”

‘신약’에서 존대의 대상에 대한 체언의 여격으로는 “의”가 사용되었다.

예수의 옛주온디 (1:30)
예수의 나아오니 (1:32)
문둥병든자가 예수의 나아와 (1:40)
스방에서 예수의로 나아오더라 (1:45)
영광을 하늘의 돌너보내며 (2:12)
선생님의 왓스오니 (9:17)

1-6-2-4. “-드려”

반신불슈드려 닐으샤디 (2:5)
 더드려 닐으샤디 (2:14)
 그 데즈드려 닐으티 (2:16)
 더회드려 닐으샤디 (2:17)
 손맛론 사롬드려 닐으샤디 (3:3)
 그 아비드려 무르샤디 (9:21)
 내가 나드려 무엇을 하야달나느냐 (10:51)
 예수 | 나무드려 닐너 굴으샤디 (11:14)

1-6-3. 기구격

‘신약’에서 기구격으로는 “로(노),으로” 등이 사용되었다.

1-6-3-1. “-로 (노)”

나는 너희게 물노 세례를 주거니와 (1:8)
 내가 너희로 사롬을 낙논 어부가 되게 하리라 (1:17)
 돌노 게 몸을 상하더니 (5:5)
 하늘님의 나라가 권세로 림히는 것을 (9:1)
 어린 으히들을 팔노 안고 (10:16)

1-6-3-2. “-으로”

그는 성신으로 너희게 세례를 주시리라 (1:8)
 놈을 헤아리논 헤아림으로 너희도 (4:24)
 그 손으로 행흔 이런 권능이 (6:2)
 여러 병인을 기름으로 발나 곳치더라 (6:13)
 상으로 병자를 메고 (6:55)
 부정한 손으로 썩먹는 것을 보고 (7:2)
 손으로 묻저 주시기를 곤구하거늘 (8:32)

1-6-4. 공동격

‘신약’에서 공동격으로는 “와, 과, 으로, 로”가 사용되었다.

1-6-4-1. “-와”

‘신약’에서 모음으로 종결되는 체언의 공동격으로는 “와”가 사용되었다.

온유대 자와 예루살렘 사람이 (1:5)
매죽이와 석청을 먹더라 (1:6)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을 보시니 (1:19)
그 아비 세베대와 삭군들을 뵈에 두고 (1:20)
야고보와 요한으로 더브러 (1:29)
모든 병든자와 사귀들린자를 다리고 (1:32)

1-6-4-2. “-과”

‘신약’에서 자음으로 종결되는 체언의 공동격으로는 “과”를 사용하였다.

하늘이 갈나침과 성신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 (1:10)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드리하시니 (1:29)
시몬과 혼가지 잇는 사람이 (1:36)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8:15)
불과 물에 자조 던젯스오니 (9:22)
바리새교인과 헤롯의 당중에서 (12:13)

1-6-4-3. “-으로”

‘신약’에서 공동격으로 “으로”가 사용된 예가 있다.

둘즙심으로 혼가지 거쳐하시느니라 (1:13)
야고보와 요한으로 더브러 (1:29)

1-6-4-4. “-로 (더브러)”

‘신약’에서 공동격으로 “-로”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시몬이 그 동생 안드로스로 더브러 (1:16)
우리가 너로 더브러 무슨 상관이 잇느뇨 (1:24)
예수로 더브러 말씀하거늘 (9:4)

1-6-5. 비교격

‘신약’에서 비교격으로 “과, 와, 보다” 등이 사용되었다.

1-6-5-1. “-과”

‘신약’에서 자음으로 종결되는 체언의 비교격으로 “과”를 사용하였다.

꽃게 하라 흠과 갓치 (1:3)
서기관과 고지아니흠일너라 (1:22)
샤하엿다 하느 말과 니러나 네 상을 가지고 든니라 하느 말이 (2:9)
씨를 짜에 던짐과 고후니 (4:26)
계즈 씨 혼알과 고후니 (4:31)

1-6-5-2. “-와”

‘신약’에서 모음으로 종결되는 체언의 비교격으로 “와”를 사용하였다.

그 그르치는 것이 권세잇는자와 고토 (1:22)
선지자 중에 하나와 고토 하되 (6:15)
나무와 고후니이다 (8:24)
더희와 흠씨 계시더라 (9:8)
잇는자가 이와 고후니라 (10:14)

1-6-5-3. “-보다”

‘신약’에서 비교격으로 “보다”가 사용되었다.

나보다 능력이 만하시니 (1:7)
불에 드러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9:44)
더욱에 싸디논 것보다 나으니라 (9:47)
모든 제스보다 나으니라 (12:33)
여러 사롬보다 더욱 만흐니 (12:43)

1-7. 독립격 (호격)

독립격 조사는 체언으로 하여금 독립어가 되게 하는 조사로서 호격 조사라고도 한다. 현대 국어의 “아/야, 이여, 이시여/시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신약’에서는 “아/야, 여/이여” 등이 사용되고 있다.

1-7-1. “-아”

‘신약’의 비존대어의 독립격 조사로 자음으로 종결된 체언에는 “아”가 사용되었다.

더러운 귀신아 (5:8)
줄아 (5:34)
병어리와 귀떡어리 귀신아 (9:25)
이스라엘아 (12:29)
시몬아 (14:37)

1-7-2. “-야”

‘신약’의 비존대어의 독립격 조사로 모음으로 종결된 체언에는 “야”가 사용되었다.

쇼즈야 (2:5)

1-7-3. “-여”

‘신약’의 존대어의 독립격 조사로 자음으로 종결된 체언에는 “여”가 사용되었다.

나사렛 예수여 (1:24)

하느님의 아들 예수여 (5:7)

다윗의 주손 예수여 (10:47)

주여 (10:51)

아바 아버지여 (14:36)

사흘만에 짓겠다 하던자여 (15:29)

1-7-4. “-이여”

‘신약’의 존대어의 독립격 조사로 모음으로 종결된 체언에는 “이여”가 사용되었다.

선칭님이여 (4:38, 9:5, 9:38, 10:35, 11:21, 12:19, 12:32, 14:45)

다윗의 주손이여 (10:48)

나의 하느님이여 나의 하느님이여 (15:34)

1-8. 주제격(특수 조사)

‘신약’에서 주제격 조사로서 “은, 는”이 사용되었다.

1-8-1. “-은”

‘신약’에서 자음으로 종결되는 체언의 주제격 조사로는 “은”이 사용되었다.

요한은 악티털을 입고 (1:6)
오직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느니라 (2:22)
다른 사뭇은 먹기가 합당치아니하다 하고 (2:26)
안식일은 사뭇을 위하야 잇는 것이오 (2:27)

1-8-2. “-는”

‘신약’에서 모음으로 종결되는 체언의 주제격 조사로는 “는”이 사용되었다.

나는 너희게 물노 세례를 주거니와 (1:8)
그는 성신으로 너희게 세례를 주시리라 (1:8)
너는 내 사랑하논 아들이오 (1:11)
더희는 어부라 (1:16)
나는 내가 누구인줄을 아노니 (1:24)
이는 엇집이노 (1:27)

2. 어미

단어의 어미 변화를 굴절(屈折, inflec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체언에 여러가지 어미가 결합하거나(곡용-曲用, declension) 용언의 어간에 여러가지 어미가 결합되는 현상(활용-活用, conjugation)을 일컫는다.

여기서는 조사를 단어로 간주하였으므로 활용에 한하여만 고찰하려고 한다.

이주행(1992:162-163)에서는 국어의 활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국어의 활용형에는 종결형(終結形), 접속형(接續形), 전성형(轉成形) 등이 있다. 종결형은 한 문장을 종결짓는 활용형이다. 이것은 의미에 따라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용납형 등으로 세분된다. 접속형은 단어와 단어

, 절(문장)과 절(문장)을 접속시켜 주는 활용형이다. 이것도 의미에 따라 구속형, 방임형, 나열형, 설명형, 비교형, 선택형, 연발형, 중단형, 첨가형, 익심형, 의도형, 도급형, 반복형, 강세형, 목적형 등으로 세분된다. (최현배, 1975 : 295-326, 504-515). 전성형은 단어나 문장의 성격을 바꾸게 하는 활용형이다.

이것은 그 기능에 따라 명사형, 관형사형, 부사형 등으로 분류된다.

한편 어미는 단어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선어말 어미(先語末語尾)와 어말어미(語末語尾)로 나뉘고, 어말 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종결 어미(終結語尾)와 비종결 어미(非終結語尾)로 나뉜다. 또다시 비종결 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접속 어미와 전성 어미로 나뉜다.

2-1.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오는 어미로서 대부분의 어간과 결합하여 시제(時制), 상(相), 서법(敍法) 등을 실현하는 기능을 한다.

시제(時制, tense)는 어떤 사건, 행위, 상태 등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언어형식으로 어떤 기준시를 중심으로 사건, 행위, 상태 등의 앞뒤 시간적 위치를 표현하는 문법 범주이다.

상(相, aspect)은 어떤 시간적 관계에서 동작이나 상태의 양상이 일정한 형태로 표시되는 현상으로서 시간적 흐름 위에 사태가 펼쳐져 있는 모양이나 길이를 뜻하는 시간 양태이다.

서법(敍法, mood)은 사건이나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활용형태로 표현하는 문법 범주이다.

‘신약’에서 이러한 선어말 어미의 형태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1-1. “-겠-”

‘신약’에서 추측, 의지 가능성 등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겠-”이 사용되었다.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2:7)
 어느 것이 쉽겠느냐 (2:9)
 선을 행하겠느냐 악을 행하겠느냐 생명을 구하겠느냐 죽이겠느냐 (3:4)
 너희가 능히 밋겠느냐 (10:38)
 우리가 능히 하겠느냐 (10:39)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11:3)
 그 주손이 되겠느냐 (12:27)

2-1-2. “-리-”

‘신약’에서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리-”가 사용되었다.

네 압해 보내리니 (1:2)
 거긔셔도 도를 전파하리니 (1:38)
 내게 달나하면 주리라 (6:22)
 그 사롬을 붓그리워하리라 (8:38)
 엘니야를 계시게 하리이다 (9:5)

2-1-3. “-노-”

‘신약’에서 확인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노-”가 사용되었다.

내가 누구인줄을 아노니 (1:24)
 내가 하고저하노니 (1:41)
 내가 너희게 말하노니 (11:24)
 우리가 아노니 (12:14)
 진실노 너희게 낵노니 (14:25)

2-1-4. “-더-”

‘신약’에서 회상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더-”가 사용되었다.

그 우에 림ㅎ심을 보시더니 (1:10)
 거긔셔 기도ㅎ시더니 (1:35)
 뭇사롬의게 증거하라 ㅎ셋더니 (1:44)
 썩을 먹은 사나희가 오천명이더라 (6:44)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8:13)
 몇광쥬리에 답앗더니 (8:19)
 더희와 흙희 계시더라 (9:8)

2-1-5. “-시-”

‘신약’에서 존대의 의미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시”가 사용되었다.

나보다 능력이 만ㅎ시니 (1:7)
 세례를 요한의게 받으시고 (1:9)
 물에서 올라 오실식 (1:10)
 그 우에 림ㅎ심을 보시더니 (1:10)
 광야에 나가게 ㅎ시니 (1:12)
 그물을 바다에 던짐을 보시니 (1:16)
 어부가 되게 ㅎ리라 ㅎ시니 (1:17)
 그 동쌍 요한을 보시니 (1:19)
 그 사롬의게셔 나오너라 ㅎ시니 (1:26)
 집에 드리가지니 (1:29)
 그 손을 잡아 니르키시니 (1:31)
 허다흔 사롬을 꺾치시며 (1:34)
 거긔셔 기도ㅎ시더니 (1:35)
 온 갈닐니에 돈니시며 (1:39)
 도를 전파ㅎ시고 (1:39)

2-2. 어말 어미

어말 어미란 단어의 맨 끝에 오는 어미로 말하는데, 이것으로 한 단어가

끝나기 때문에 어말 어미라고 한다.

어말 어미는 다시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로 구분된다.

2-2-1. 종결 어미

종결 어미는 한 문장이 끝남을 나타내는 어미로서 그 의미에 따라 평서형, 명령형, 청유형, 기원형, 의문형, 감탄형, 웅낙형 등으로 나뉜다.

‘신약’에서 종결 어미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2-1-1. 평서형

‘신약’에서 평서형 종결 어미로는 “-리라, -더라, -지라, -니라, -러(너)라, -노라, -이다, -라” 등이 사용되었다.

2-2-1-1-1. “-리라”

‘신약’에서 의지를 나타내는 평서형 종결 어미로 “-리라”가 사용되었다.

네길을 예비하리라 (1:2)

세례를 주시리라 (1:8)

너희게 알게 하리라 (2:10)

잇는 것도 세아스리라 (4:25)

구원하리라 (8:35)

붓그러워 하리라 (8:38)

2-2-1-1-2. “-더라”

‘신약’에서 회상을 나타내는 평서형 종결 어미로 “-더라”가 사용되었다.

세례를 밧더라 (1:5)

석청을 먹더라 (1:6)

깃버하논자라 하시더라 (1:11)

그들의게 슈종드더라 (1:31)
샤귀를 내어 쫓치시더라 (1:39)
예수썸로 나아오더라 (1:45)

2-2-1-1-3. “-지라”

‘신약’에서 평서형 종결 어미로 “-지라”가 사용되었다.

감당치 못홀지라 (1:7)
혼가지 거쳐흐시논지라 (1:13)
열병으로 알아누엇논지라 (1:30)
그 사롬이 짝긱혼지라 (1:42)
송스흐라 흐논지라 (3:2)

2-2-1-1-4. “-니라”

‘신약’에서 평서형 종결 어미로 “-니라”가 사용되었다.

브리고 쫓치니라 (1:18)
예수를 쫓치니라 (1:20)
하느님의 거룩혼자니라 (1:24)
새부딕에 넷느니라 (2:22)
안식일의 주인이 되느니라 (2:29)

2-2-1-1-5. “-려라”

‘신약’에서 평서형 종결 어미로 “-려라”가 사용되었다.

귀신이 들녔다 혼 연고려라 (3:30)
홀수가 업슬려라 (9:3)

2-2-1-1-6. “-노라”

‘신약’에서 평서형 종결 어미로 “-노라”가 사용되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2:17)

몬져 말하엿노라 (13:23)

이 사롬을 아지못하노라 (14:71)

2-2-1-1-7. “-이다”

‘신약’에서 평서형 종결 어미로 “-이다”가 사용되었다.

쥬를 찾느이다 (1:37)

썻긋하게 하시리이다 (1:40)

닐곱이로소이다 (8:5)

하나이랴 하더이다 (8:28)

엘니야를 계시게 하리이다 (9:5)

2-2-1-1-8. “-라”

‘신약’에서 평서형 종결 어미로 “-라”가 사용되었다.

더희는 어부라 (1:16)

2-2-1-2. 명령형

‘신약’에서 명령형 종결 어미로 “-라”가 사용되었다.

2-2-1-2-1. “-라”

복음을 밋으라 (1:15)

그 사롬의게서 나오너라 (1:25)

썻긋홈을 밋으라 (1:41)

못 사람의게 증거하라 (1:44)

혼가온디 내려서라 (3:3)

2-2-1-2-2. “-지어다”

‘신약’에서 명령형 종결 어미로 “-지어다”가 사용되었다.

드를자는 드를지어다 (4:9, 23)

도라가지 말지어다 (13:16)

2-2-1-3. 기원형

‘신약’에서 기원형 종결 어미로 “-쇼셔”가 사용되었다.

2-2-1-3-1. “-쇼셔”

예수의 날으디 보쇼셔 (2:24)

도아 주옵쇼셔 (9:22)

도아주소셔 (9:24)

안쳐주옵쇼셔 (10:37)

불상히 녀이쇼셔 (10:48)

보게 하여주소셔 (10:51)

2-2-1-4. 의문형

‘신약’에서 의문형 종결 어미로 “-느뇨, -느냐, -나 다, -잇가, -이나, -(더)냐” 등이 사용되었다.

2-2-1-4-1. “-느뇨”

상관이 잇느뇨 (1:24)
 멀허러 왓느뇨 (1:24)
 이는 어찜이뇨 (1:27)
 금식하지아니하느뇨 (2:18)
 다윗의 주손이라 하느뇨 (12:35)

2-2-1-4-2. “-느냐”

죄를 사하겠느냐 (2:7)
 무슨 상관이 잇느냐 (5:7)
 썸 몇덩이나 잇느냐 (6:38)
 얼마나 되엇느냐 (9:21)
 그 주손이 되겠느냐 (12:37)
 무슨 악한 일을 행하겠느냐 (15:14)

2-2-1-4-3. “-나다”

더희가 순종한다 하니 (1:27)

2-2-1-4-4. “-잇가”

구원을 얻으리잇가 (10:26)
 뉘 안희가 되리잇가 (12:23)
 예비하리잇가 (14:12)
 나를 브리시느잇가 (15:34)

2-2-1-4-5. “-이나”

원하느 것이 무엇이나 (10:36)
 이 화상과 글이 뉘것이나 (12:16)
 증거하느 것이 무엇이나 (14:60)
 네가 유대인의 왕이나 (15:2)

2-2-1-4-6. “-(더)냐”

헝헝게 ㅎ더냐 (11:28)

그릇 싱각흠이 아니냐 (12:24)

찬송홀자 의 아들 그리스도냐 (14:61)

2-2-1-5. 감탄형

‘신약’에서 감탄형 종결 어미로 “-(이)로다, -도다”가 사용되었다.

2-2-1-5-1. “-(이)로다”

새 도로다 (1:27)

이를 위함으로다 (1:38)

더 무리로다 (14:70)

2-2-1-5-2. “-도다”

춤람ㅎ도다 (2:7)

먹고 마시는도다 (2:16)

나를 떨니ㅎ도다 (7:6)

계명을 저버리도다 (7:9)

사툼의 뜻만 싱각ㅎ는도다 (8:33)

심히 어렵도다 (10:23)

2-2-2. 비종결 어미

비종결 어미는 문장의 종결을 나타내지 않는 어말 어미인데, 이는 다시 접속 어미와 전성 어미로 구분된다.

2-2-2-1. 접속 어미

접속 어미는 한 문장을 다른 문장에 연결시켜 주는 어미인데 이것은 다른 어미에 비하여 그 수효가 가장 많다.

2-2-2-1-1. “-니”

‘신약’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 어미로 “-니”가 사용되었다.

네 압해 보내리니 (1:2)
죄사함을 얻게 하니 (1:4)
나보다 능력이 만하시니 (1:7)
그 우에 림함심을 보시더니 (1:10)
광야에 나가게 하시니 (1:12)
하느님 나라가 갓가왔스니 (1:15)
그물을 바다에 던짐을 보시니 (1:16)
어부가 되게 하시라 하시니 (1:17)
그 동생 요한을 보시니 (1:19)
더희가 가버나움에 드러가니 (1:21)
네가 누구인줄을 아노니 (1:24)
그 사람의게서 나오너라 하시니 (1:26)
더희가 순종한다 하니 (1:27)
집에 드러가시니 (1:29)
그 손을 잡아 니르키시니 (1:31)
예수의 나아오니 (1:32)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1:35)
쥬를 찾느이다 하니 (1:37)
거기셔도 도를 전파하시니 (1:38)
내가 하고져하노니 (1:41)
못사람의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1:44)
만히 전파하야 널리 퍼지게 하니 (1:45)

2-2-2-1-2. “-르 식”

‘신약’에 동시성을 나타내는 접속 어미로 “-르 식”가 사용되었다.

광야에서 세례를 줄식 (1:4)

물에서 올라 오실식 (1:10)

또 지나가실식 (2:14)

예수 | 혼가지로 가실식 (5:24)

고향으로 도라가실식 (6:1)

2-2-2-2. 전성 어미

전성 어미는 한 문장을 다른 문장에 내포시키는 기능을 하는 어미인데, 이는 그 기능에 따라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부사형 전성 어미 등으로 세분된다.

명사형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여 용언으로 하여금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인데, “-(으)ㅁ, -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관형사형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여 용언으로 하여금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는 것으로, “-(으)ㄴ, -는, -(으)ㄹ” 등이 이것에 속한다.

부사형 전성 어미는 용언의 어간에 결합하여 용언으로 하여금 부사와 같은 기능을 하게 하는 것인데, “-아, -어, -게, -지, -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신약’에 전성 어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2-2-2-2-1. 명사형 전성어미

‘신약’에 명사형 전성 어미로 “-ㅁ, -기”가 사용되었다.

2-2-2-2-1-1. “- ㅁ ”

죄 사함을 얻게 하니 (1:4)

완악함을 근심하샤 (3:5)
큰일 헝함심을 듣고 (3:8)
흠이 김지 아니함으로 (425)
너를 불상히 녀이심을 (5:19)

2-2-2-2-1-2. “-기”

‘신약’에 명사형 전성 어미로 “-기”가 사용되었다.

먹기가 합당치 아니하다 (2:26)
더희가 보기는 보아도 (4:12)
돛기는 드리도 (4:12)
결실하기를 (4:20)
흠의 잇기를 군구하거늘 (5:18)

2-2-2-2-2. 관형사형 어미

‘신약’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논, -ㄴ”이 사용되었다.

2-2-2-2-2-1. “-논”

회기하논 세례를 전파하야 (1:4)
너는 내 사랑하논 아들이오 (1:11)
내 깃버하논자라 (1:11)
내가 너희로 사롬을 낙논 어부가 되게 하리라 (1:17)
그 그르치논 것이 권세잇논자와 고토 (1:22)
샤귀의 말하논 것을 허락지아니심은 (1:34)
시몬과 혼가지 잇논 사롬이 (1:36)

2-2-2-2-2-2. “-ㄴ”

예수께서 각식병든 허다한 사롬을 꺾치시며 (1:34)
 허다한 샤귀를 내어 쫓치시니 (1:34)
 한적한 곳에 나가샤 (1:35)
 모세의 명한 해물을 드러 (1:44)
 집에 계신 소문이 들니매 (2:1)

2-2-2-2-3. 부사형 어미

‘신약’에 부사형 전성 어미로 “-아, -어, -게, -지, -고”가 사용되었다.

2-2-2-2-3-1. “-아”

그 손을 잡아 니르키시니 (1:31)
 경계하샤 곳 보내시며 (1:43)
 소반에 담아 곳 내게 주기를 (6:25)
 더희가 종을 잡아 짜리고 그져 보내거늘 (12:3)
 너희를 잡아 공회에 즐겼시오 (13:9)
 기름을 담아 가지고 와서 (14:3)

2-2-2-2-3-2. “-어”

손을 펴서 문지시며 (1:41)
 샤귀의 왕을 힘납어 샤귀를 내어쫓논다 하니 (3:22)
 새가 와서 주어 먹고 (4:4)
 풀어 뉘시더라 (4:34)

2-2-2-2-3-3. “-게”

죄샤롬을 엇게 하니 (1:4)
 광야에 나가게 하시니 (1:12)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17)

만히 전파하야 널니 퍼지게 하니 (1:45)
썩듯지 못하게 흠이니 (4:12)
곳 깃브게 밧으나 (4:16)
결실치 못하게 됴시오 (4:19)

2-2-2-2-3-4. “-지”

성에 드러가지 못하시고 (1:45)
금식하지 못하느니 (2:19)
놉지 못하엿느뇨 (2:25)
능히 서지못하고 (3:25, 26)
결박지 안코는 (3:27)

2-2-2-2-3-5. “-고”

되시고 가니 (4:36)
버기하시고 줌으시더니 (4:38)
먹고 비부른지라 (6:42, 8:8)
그사롬을 다리고 무리를 썩나샤 (7:33)
징조를 보여 달나고 시험하거늘 (8:11)

3. 존대법

‘신약’에서 존대법으로는 선어말 어미의 사용, 존칭 조사의 사용, 존대어의 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3-1. 존칭 선어말 어미의 사용

‘신약’에서 존칭 선어말 어미로 “시”를 사용하고 있다.

나보다 능력이 만하시니 (1:7)

세례를 요한의게 받으시고 (1:9)
 물에서 올라 오실식 (1:10)
 그 위에 림함심을 보시더니 (1:10)
 광야에 나가게 하시니 (1:12)
 그물을 바다에 던짐을 보시니 (1:16)
 어부가 되게 하시라 하시니 (1:17)
 그 동생 요한을 보시니 (1:19)
 그 사람의게서 나오니라 하시니 (1:26)
 집에 드러가시니 (1:29)
 그 손을 잡아 니르키시니 (1:31)
 허다한 사람을 곳치시며 (1:34)
 거긔서 기도하시더니 (1:35)
 온 갈릴니에 돈나시며 (1:39)
 도를 전파하시고 (1:39)
 손을 펴서 문지시며 (1:41)
 경계하사 곳 보내시며 (1:43)
 성에 드러가지 못하시고 (1:45)

3-2. 존칭 조사의 사용

‘신약’에서 존칭을 나타내는 조사로 “-되, -되서” 등을 사용하고 있다.

3-2-1. “- 되”

예수되 나아오니 (1:32)
 예수되 나아와 (1:40)
 바리새교인이 예수되 날으되 (2:24)

3-2-2. “- 되서”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드려가샤 (1:21)
 예수께서 각식 병든 허다한 사람을 낫치시며 (1:34)
 주께서 만일 하고저하시면 (1:40)
 예수께서 다시 바다가에 나가시니 (2:13)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노 더브러 (2:16)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드려가시니 (3:1)
 예수께서 그 사롬을 낫치나 엿보아 (3:2)
 예수께서 대즈들과 혼가지 (3:7)

3-3. 존대어의 사용

‘신약’에서의 존대법으로 존대어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기록한 말숨에 (1:2)
 모세의 명한 레물을 드려 (1:44)
 집에 계신 소문이 들니매 (2:1)
 레위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제에 (2:15)
 예수희 날으되 보쇼셔 (2:24)

IV. 결 론

지금까지 1937년 대영성서공회가 발행한 '신약전서' 중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성서의 표기법과 형태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1933년에 제정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기법과 비교하여 볼 때 '신약'은 다른 문헌들에 비하여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문헌들에 비하여 '신약'의 표기법이 옛것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다음의 몇가지 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성경의 기록물 자체가 가지는 보수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외부의 변화에 대하여 신속히 적응하는 것을 거부하는 성경 기록물의 특수성이다.

둘째, 기독교의 당시 사회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한일합방의 상황 아래서 기독교인들의 애국적 태도는 성경의 표기법을 변경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을 것임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점에 있어서는 /, /의 사용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한일합방 이전인 1907년에 설치한 國文研究所가 마련한 '國文研究議定案'에서 /, /를 계속 쓰기로 하였는데, 한일합방 후인 1912년에 공포된 '普通學校用 諺文綴字法'에서는 다시 /, /를 폐기하고 / ㅏ/로 대체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1933년에 제정 발표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 /가 자모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처럼 한글의 모음체계에서 소멸한 /, /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신약'의 표기법과 형태상의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표기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된소리로서는 /ㅅ/계의 병서를 사용하고 있다.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된소리로서 /ㅆ, ㅈ, ㅊ, ㅌ/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ㅅ, ㅈ, ㅊ, ㅌ, ㅍ/ 등의 /ㅅ/계의 병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형태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1) 주격 조사로는 “이, 가, - ㅏ, -ㅓ셔” 등이 사용되고 있다.
- 2) 보격 조사로는 “이/가, 와/과, (으)로”가 사용되고 있다.
- 3) 목적격 조사로는 “을, 를”이 사용되고 있다.
- 4) 관형격(속격) 조사로는 “의, - ㅓ”가 사용되고 있다.
- 5) 서술격 조사는 연결형과 종결형으로 구분된다. 연결형으로는 “-이니, -일너니, -이러니, -이나, -이시니, -(이)요”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종결형으로는 “-이오, -이라, -이러라, -일너라, -러라, -이니라, -이더라, -이로다, -이니이다, -이시라, -시니이다, -이시니라, -이나, -이노” 등이 사용되고 있다.
- 6) 부사격 조사에 있어서 처격으로는 “에, 에서, 서, 로(노), 으로, 으로서, 로브터, 으로브터, 의게서” 등을 사용하고 있다. 여격으로는 “의게, 게, 썩, 드려”가 사용되었다. 기구격으로는 “로(노), 으로”가 사용되었다. 공동격으로는 “와, 과, 으로, 로”가 사용되었다. 비교격으로는 “과, 와, 보다”가 사용되었다.
- 7) 독립격(호격) 조사로는 “아/야, 여/이여” 등이 사용되고 있다.
- 8) 주제격(특수) 조사로 “은, 는”이 사용되었다.
- 9) 선어말 어미로 “-갓-, -리-, -노-, -더-, -시-” 등이 사용되었다.
- 10) 평서형의 종결 어말 어미로 “-리라, -더라, -지라, -니라, -려(너)라, -노라, -이다, -라” 등이 사용되었다.
- 11) 명령형의 종결 어말 어미로 “-라, -지어다”가 사용되었다.
- 12) 기원형의 종결 어말 어미로 “-쇼셔”가 사용되었다.

- 13) 의문형의 종결 어미로 “-느뇨, -느냐, -ㄴ 다, -잇가, -이나, -(더)냐” 등이 사용되었다.
- 14) 감탄형의 종결 어미로 “-(이)로다, -도다”가 사용되었다.
- 15) 접속 어미로 “-니, -ㄴ 식” 등이 사용되었다.
- 16) 명사형 전성 어미로 “-ㅁ, -기”가 사용되었다.
- 17)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는, -ㄴ”이 사용되었다.
- 18) 부사형 전성 어미로 “-아, -어, -게, -지, -고”가 사용되었다.
- 19) 존대법으로는 선어말 어미 “-시”의 사용, 존칭 조사 “-췌, 췌셔”의 사용, 존대어의 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봉희(1978), 국역성서의 서지학적 고찰,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논문
- 김양선(1955-1960), 한국의 성서 번역사, '성서 한국' 1-2, 서울 : 성서공회
- 김영덕(1971), 한국 초기성서 번역체 연구, 한국 문화연구원 논총 18집, 이화여대
- 김윤경(1960), 성서가 한글에 미친 영향, 한국 성서번역 50주년 기념 논문집, 서울: 대한성서공회
- 김중은(1978), 구약성서 국역사, '신학사상' 제22집, 한국신학 연구소
- 김형규(1962), 국어학개론, 일조각
- 김형규(1975), 국어사개요, 일조각
- 김형철(1987), 19세기말 국어의 문체·구문·어휘의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혜곤(1973), 한국의 성서 번역과정의 사적 배경과 선교교육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논문
- 나채운(1985), 개역성서에 있어서의 국어학적인 문제점 - 5경의 문법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 , 한글성서와 거래문화, 기독교문사
- 나채운(1990), 우리말 성경연구, 기독교문사
- 나채운(1992), 주기도·사도신경·축도, 기독교문사
- 남광우(1975), 단모음화·움성모음화 연구, '동양학' 5집, 서울: 단국대 동양학 연구소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 민영진(1990), 국역성서연구, 성광문화사
- 박창환(1971), 한글성서 번역사, '교회와 신학' 제4집, 장로회 신학대학
- 서정수(1985), 초기 우리말 성경의 표기법과 대명사에 관하여 - '성경직학'를 중심으로 - , 한글성서와 거래문화, 기독교문사
- 유창균(1967), 국역성서가 국어의 발달에 미친 영향, '동서문화' 창간호(계명대학교)
- 이기문(1961), 국어사개설, 탑출판사
- 이석주(1990), 기사문장의 변천, '신문기사의 문체', 한국언론연구원
- 이원순(1977), 성서 국역사 논고, '민족문화' 3집 (서울, 민족문화 추진회)
- 이용호(1980), 한국 천주교회의 한글 번역사업, '논문집 7집', 서울 : 성결교 신학교

- 이익섭(1992), 국어표기법연구, 서울대출판부
- 이익섭(1986), 국어학개설, 학연사
- 이익섭·임홍빈(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이정근(1976), 성서 '새번역'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김형규교수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편
- 이주행(1992), 현대국어문법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전재호(1989), 성서언어의 변천과 올바른 이해, '어문논총' 제23집, 경북대
국문과
- 정길남(1983), 개화기 국역성서가 한글에 미친 영향, '전주대학신문' 제165호
- 정길남(1983), 개화기 번역성서의 음운고찰: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전주대학
어학연구' 제1집
- 정길남(1984), 이수정역 '마가복음'의 국어학적 고찰, '한국학논집' 제6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정길남(1985), 초기 국역성서의 격조사에 대하여, '한국학논집' 8집, 서울: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 정길남(1985), 초기 국역성서의 표기에 관하여, 한글성서와 거래문화, 기독교
교문사
- 정길남(1987), 개화기 국역성서의 표기법과 문법형태, 개문사
- 정길남(1987), 초기 국역성서의 모음현상에 관한 고찰, 그리스도교와 거래
문화, 기독교문사
- 정길남(1991), 국역성서의 표현구조 연구, '한글' 211호, 한글학회
- 지춘수(1971), 초기 성경에 나타난 정서법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4'
- 최태영(1983), 초기번역성경 연구, 숭전대 논문집 13
- (1985), 초기번역성경연구Ⅱ, 한글성서와 거래문화, 기독교문사
- (1986), 초기번역성경연구Ⅲ, 국어학 신연구, 약천 김민수교수 화갑기념
논총 탑출판사
- 최현배(1975), 우리말본, 정음사
- 표성수(1971), 한글 성서문체의 형성 및 변화과정에 관한 소고, 고려대 석사
논문

(Abstract)

A Study of '관주 신약전서' in Korean Linguistics

Cho, Yoon-J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sider the describing method of this Bible and the characteristics in form laying stress on the Mark of '관주 신약전서' (the New Testament adding explanation which spelling is old one) which was published in 1937. This study will be made a stepping stone for the more profound learning.

By comparing the describing method of this Bible expressed through the concrete examples of this Bible clause with the course of changes in Korean language history,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describing method of this Bible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escribing method of this Bible and the change of Korean language were studied.

When comparing the describing method on "Hangul Mach'umpop Tongiran" (The rules on Korean spelling unification) established in 1933 with this revised Bible, we can find that this one did not adapt to the change as compared with the other literature.

This is caused by the conservation of this Bible records and the understanding of Christianity on the society of those days.